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중국인의 일상

(中國人的日常 한국어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 중 과

강 은 정

2020년 8월



# 중국인의 일상

(中國人的日常 - 한국어번역논문)

지도교수 송 현 선

강 은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강은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趙以范



위

원

金中燮



위

원

宋恩亨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년 8월



## 목 차

공포의 박수소리.....	1
다리의 죽음.....	4
나의 초등학교 시절.....	15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	30
냉혹한 이성.....	38
농민 마췌이를 변론하다.....	62

## 공포의 박수 소리

홍콩 봉황TV에서 「비상한 남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후 중국 후난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거의 똑같이 모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 남녀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공개 맞선을 보는 프로그램이었다. 「비상한 스피드 매칭」이라고도 불렸다.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이 느껴졌다.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상당한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미혼 남녀의 부모가 방청석에 앉아서 작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강력 추천’이라고 쓰여 있었다. 물론 그들이 ‘강력 추천’하는 사람은 노처녀, 노총각인 자신의 자녀였다. 부모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자신의 자녀를 칭찬하기 바빴다. 그 모습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다.

미혼 남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한 진실하고 진지했다. 그들은 모두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한 번도 TV에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쇼’를 하는 게 아니었다. 노처녀인 여성 출연자들과 삼십 대 후반의 남성 출연자들이 사회적 위치가 평범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부모에 대한 그들의 애정이 아주 깊고 그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감사해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들이 다정한 목소리로 부모님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어린 시절 꼬마 아이로 돌아간 듯 했다.

사회자가 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모든 출연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한 남성 출연자가 말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주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가장 큰 방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내드렸어요. 나중에 제 집이 생기고 만약 부모님이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똑같이 가장 큰 방을 저희 부모님께 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인간을 탐구하는 소설가의 눈으로 봐도 내가 느낀 그 진실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른 한 여성 출연자가 말했다.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많았고, 아빠는 타지에 나가 일을 하셔서 집에 자주 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물난리가 크게 났는데 제가 잠에서 깨 보니 엄마가 혼자서 커다란 냉장고를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엄마가 한 명은 업고, 한 명은 품에 안고, 양손으로는 한 명씩 아이의 손을 잡아 마치 한 대의 자동차처럼 우리를 싣고 높은 곳으로 데려다 놓으셨죠. 나중에 엄마에게 그때 어떻게 그렇게 큰 냉장고를 혼자서 높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셨는지 여쭙 봤지만 엄마도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냉장고가 당시 우리 집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ですよ.”

그녀는 말하다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다.

이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중국 대륙 TV프로그램에서도 부모와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오만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부모를 조롱하며 부모에게 비아냥대고 싶어 한다.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어 부모의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찌른다! 그들은 자신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에게 오만하게 구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들에게 아주 많은 빚을 졌고, 아주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로 비아냥대고 부모를 조롱하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스튜디오에 있는 또래 관중의 박수갈채를 일으켰다.

나는 TV에서 이런 장면을 보고, 이런 상황의 박수 소리를 들을 때면 늘 등골이 오싹해진다. 심지어는 공포감까지 느낀다.

요즘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 그건 고작 자녀들의 학업이 과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정말 부모들의 탓인가?

단언컨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이러한 태도로 박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이렇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과 홍콩 동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확실한 건 중국 대륙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지역에 사는 화교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박수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단 말인가!

## 다리의 죽음

다리는 내가 아는 분의 외동딸이었다. 다리는 예쁘고 얌전한 중학교 2학년 소녀였다. 다리 아버지는 원래 대형 신문사의 편집자였으며 나보다 일고여덟 살이 많다. 그러면 올해 나이가 쉰둘, 쉰셋 정도 됐을 것이다. 십 년 전에 알게 된 분이다. 나중에는 점점 왕래가 끊어졌다.

어느 날 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는 한 남성을 봤다. 때는 겨울이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아주 추운 날이었다.

택시 기사가 나에게 물었다.

“손님, 저 분 목적지를 물어봐서 만약 우리가 가는 길이면 합승해도 괜찮겠습니까?”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데, 좋습니다!”

택시 기사가 차를 세워 창문을 내려 그에게 행선지를 물었고 그는 아시안 선수촌 쪽에 갈 거라고 말했다. 마침 우리 집으로 가는 길과 같은 방향이었다. 택시 기사가 나에게 합승을 부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내가 먼저 차문을 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서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가 나를 한 번 보고는 내 무릎을 치며 놀라면서도 친근한 말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지만 어디서 그를 만났었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이고, 이봐, 예전에 자네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지금은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건가?”

그는 꾸짖는 말투로 말했다. 속상해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의 이름을 듣고 나는 거짓으로 말했다.

“아, 선생님이시군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실 나는 그때까지도 그가 누구인지 여전히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고는 기사에게 호탕하게 말했다.

“얼른 출발하시죠. 제가 이 친구 요금까지 내면 되겠네요!”

기사가 말했다.

“두 분이 각자 요금을 내주세요. 원래 아는 사이였다고 해도 일행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좋다고 해서 선생님을 태운 겁니다. 한 사람 차비를 더 벌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손님을 태웠는데, 뭣 하러 굳이 또 손님을 태우겠습니까?”

내가 차에서 내릴 때 그는 자신이 내 뭉까지 널 거라며 내게 차비를 내지 못하게 했다. 다는 집에 와서 방금 전에 그에게 받은 명함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는 어느 광고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연히 마주친 그 ‘선생님’을 꼭 기억해내고 싶었다. 나는 명함수첩을 한 장씩 뒤져봤다. 마침내 그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발견했다. 그 명함에 적혀 있던 그의 신분은 신문사 문예부 부주임이자 부편집장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택시에서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려고 했다. 특히 그는 나를 알아보고 자신의 이름까지 말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해내지 못한 게 미안했다. 선의의 거짓말을 약간 보태 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잠시 하하 소리 내어 크게 웃었다. 마치 그 쾌활한 웃음소리로 그가 현재 자신의 새로운 직업과 신분 그리고 생활방식과 생활수준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언제 신문사를 그만뒀냐고 물었다.

그는 1990년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나는 사직이냐, 겸직이냐 물었다.

그는 당연히 사직이라고 말했다. 본인 같은 사람은 만약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한 번 결심했다면 모든 일에 죽을 각오로 임해 지난 일은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질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는 전화기를 집에 설치했으며 넓은 집으로 이사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아시아 선수촌에 거실 하나, 방 세 개짜리 집을 사줬다고 했다. 자신이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만 하다고 했다. 회사에 삼백만 위안이 넘는 수익을 벌어다주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회사가 당연히 자기에게 해줘야 하는 보상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본래 개인 승용차를 타

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와 마주친 그날은 운전기사가 손님을 맞이하러 가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된 것임을 강조했다.

“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와 자전거를 타본지가 2년도 넘었다네. 택시도 탈 일이 없었지. 오늘은 상황이 정말 난처해서 자네에게 신세를 지게 됐네.”

하지만 그의 말투를 들어보니, 그가 마치 예전에 승객들로 붐비는 버스와 자전거를 타고 베이징 도심을 가로 질러 다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둘러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신세를 졌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그가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나와 보통의 친구 관계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다. 만약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저 나에게 중국 국내 또는 홍콩, 타이완 유명 가수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권하는 일 정도였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됐다. 보아하니 그는 이미 국내 유명가수 콘서트기획 분야의 큰손이 된 듯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위 대박 난 콘서트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표 가격이 비싼 콘서트는 모두 그가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한 번은 그가 전화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공연 기획자가 너무 많아졌어. 개나 소나 순식간에 공연 기획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하지만 유명하고 실력 있는 기획자는 별로 없어. 정말 일세. 중국은 앞으로 슈퍼 기획자를 배출해야 해!”

그는 오십이 넘은 나이에든 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인생 후반부의 목표를 정한 듯했다. 바로 최고의 유명 가수 콘서트 기획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았다. 최소한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루는 그가 그의 귀여운 딸 다리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나는 그날 예쁘고 얌전한 소녀 다리를 처음 만났다.

“삼촌이라고 부르렴!”

다리는 조금 어색하게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고는 수줍어하며 얼굴을 붉혔다. 다리는 자신의 아빠 옆에 달라붙어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잡지화보를 봤다.

“내 딸 어떤가?”

“.....”

나는 그의 말뜻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자네가 보기에 우리 딸 이미지가 어떠냐 말일세.”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딸아이 앞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나는 아주 놀랐다.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리를 한 번 쳐다보고 그에게 말했다.

“아주 청순하네요! 나중에 연예인해도 되겠어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그는 내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

그는 딸아이를 다정하게 꼭 껴안으며 나를 바라보고는 솔직하게 말했다.

“실은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왔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드려야죠.”

“딸아이일로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어. 그게 아니었으면 딸아이를 데려오지도 않았겠지.”

나는 다리를 다시 한 번 쳐다봤다. 다리는 말없이 기대하고 있었다. 다리는 잡지 확보 보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내 반응을 상상하고 있는 눈치였다.

“이 사랑스런 내 딸이 나에게서 유일한 위로일세. 아이 엄마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그때 부편집장 승진에서 밀려날까 두려워서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지. 나는 부편집장이 됐지만 아이는 어려서부터 학업이 뒤쳐졌다네. 나는 그때 다리를 좋은 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했어. 내가 딸아이 공부에는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다리가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중학교에서 대충 공부하고 있어. 나는 다리를 대학에 보내지 않을 생각이야. 다리도 대학에는 욕심이 없더군. 다행히도 내 딸 다리가 이미지도 괜찮고 목소리도 아주 예쁘다네. 다리야, 일어나서 삼촌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 봐.”

다리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아무거나 불러보렴. 자신 있는 노래로 한 곡 불러 봐.”

당시 TV에서 타이완 연속극 「신백낭자전기」를 방영하고 있었다. 다리는 작은

소리로 그 드라마 주제곡인 「천년등일회」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리는 노래를 마치고 아빠를 쳐다봤다. 마치 아빠에게 ‘저 잘 불렀어요? 한 곡 더 불러야 돼요?’라고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리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똑같이 묻고 있는 듯했다.

내가 다리에게 말했다.

“다리야, 이제 앉으렴!”

다리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나는 다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리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사실 그렇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많은 또래 여자 아이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예의를 차려 대답했다.

“다리야, 들었지? 너 공부에 자신 없으면 그만 뒤라. 여자 아이는 커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글과 문화를 가르치지 않을 거면 중학교까지만 다녀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는 말하면서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최근 몇 년 사이, 나는 문화와 지식의 몰락에 대한 수많은 비관적인 말은 들어봤지만 대형 신문사 편집부 부주임까지 맡았던 아버지란 사람이 자신의 딸과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중국에서 신문사 부편집장도 고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 그도 그 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째서……. 아무리 그 대우가 공수표에 불과하다 해도 또 그가 지금은 직업을 바꿔서 광고회사 부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는 은근슬쩍 다시 한 번 딸의 몸을 밀며 부추겼다.

“다리야, 오늘 삼촌이 네 노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있으니, 삼촌 앞에서 한 곡 더 불러보렴!”

다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나는 황급히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한테 부탁하실 게 뭔지 바로 말씀해보세요!”

“나는 내 딸 다리를 영화, TV, 노래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한번 키워보고 싶네. 노래는 내가 충분히 힘쓸 수 있지만 영화와 TV쪽은 내가 힘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말이야. 앞으로 자네가 다리에게 신경을 좀 써줄 수 있을까 해서 부탁하러 왔네. 만약에 다리에게 적합한 배역이 생기면 추천해줬으면 하네.”

나는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일단 기회를 좀 보죠! 적당한 배역이 생기면 또 그때가 방학기간이라면…….”

“방학이랑은 상관없다네!”

그는 내 말을 끊고 말했다.

“얻기 힘든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공부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나!”

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아빠, 저 먼저 밖에 나가서 길 건너편에 있는 꽃밭에서 놀고 있어도 돼요?”

어찌됐든 다리는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였다. 설령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일지 몰라도 사춘기 소녀 다리의 자존심은 이미 민감해져 있었다.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난처해하는 다리의 마음이 이해됐다. 다리 아버지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먼저 다리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래, 다리야, 어서 가보렴. 저 꽃밭 아주 예쁘단다.”

다리는 빠르게 나를 한 번 힐끗 쳐다보고는 뒤돌아 밖으로 나갔다. 다리가 나를 쳐다볼 때 나에게 고마워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그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 마음에 대한 감사의 눈빛이었다.

방문이 닫히자, 나는 다리 아버지를 쳐다보며 아주 정중하게 고언을 했다.

“애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리는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다리는 뒤쳐진 아이가 아니에요. 가정교사를 구해서 다리에게 보충 학습을 시켜주세요! 대학입시까지는 아직 4년이나 남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그는 피던 담배꽂초를 비벼 끄고는 다른 한 개비를 꺼내 피웠다. 두 모금을 빼끔 마시고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굳이 꼭 대학에 가야 한다면 당연히 아직 늦지는 않았지. 우리 딸이 많이 뒤쳐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왜……?”

“내가 왜 다리한테 가정교사를 붙여주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이 너무 뻘하지 않나!”

“돈이 없어서요?”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자네 지금 내가 무슨 담배 피우는 줄은 아나? ‘중화’ 담배를 피우고 있다네! 나는 중화 말고 다른 담배는 안 피. 내가 한 달에 중화 담배 스무 갑만 덜 피우면 다리한테 교수 출신 가정교사도 붙여줄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는 없다네. 다리에게는 문과가 맞더군. 그러면 나중에 대학 입시 시험을 봐도 문과에 지원하겠지. 대학 문과 졸업생에다가 또 여자아이야, 무슨 장래성이 있겠는가? 석사과정은 또 어떻게 밟고? 박사과정은 또 어떻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또 뭘 어찌겠나? 교수가 되면 어떨 것 같나? 교수도 월급이 많아봤자 팔백에서 천 위안정도일 텐데. 또 앞으로 몇 년을 공부해야 하나? 적어도 8년을 더 공부해야 겨우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네! 풍부한 학식과 재능을 제대로 쌓으려면 박사까지는 계속 공부해야 하는데, 그럼 최소한 12년은 더 공부해야 한다는 말일세! 12년! 12년 뒤 중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딸아이를 대신해 다른 인생을 선택해주면 어찌면 3년 뒤 열대여섯 살에 다리를 유명 가수로 키워낼 수 있단 말일세. 설령 삼류가수가 된다 해도 공연 한 번해서 받는 출연료가 최고 명문 대학의 교수 연봉과 맞먹는 다네. 내가 부편집장에서 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기본 월급 백오십 위안 정도밖에 못 받았어! 8년 동안 삼류가수가 놀면서 천천히 벌어도 칠팔십만 위안을 넘게 번단 말일세! 만약 노래가 흥해서 광고 하나만 찍어도 고위 엘리트가 평생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왜 그 바보짓을 하겠나? 굳이 딸아이를 그런 가시밭길로 내몰아야겠나? 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일할 수 있겠나? 기껏해야 3년에서 5년 정도 밖에 못 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어준다고 해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는 못하겠지. 그때 만약 딸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있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아주 힘들게 모은 돈을 전부 딸아이 학비로 써야할 거야.

만약 다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또는 박사생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자신과 똑같이 빈털터리인 늙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면 그

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겠는가? 다리가 일찍 성공해서 유명 가수가 된다면 나도 노년에는 딸아이 덕을 볼 수 있겠지! 나는 딸아이한테 아빠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니 노년에 딸아이 덕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

나도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나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사랑스런 딸아이를 영화면 영화, TV면 TV, 노래면 노래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두루두루 활동하는 인기 스타로 만들어 볼까 하네! 물론 경쟁이 어마어마하고 그만큼 도태도 빨리될 거야. 그래서 꼭 연예계 만능 엔터테이너로 키울 거야.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에도 출연하고 또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하는 거지. 한 분야에서 실패하게 돼도 나머지 다른 두 가지 분야에서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는 말을 마치고 나를 쳐다봤다.

내가 물었다.

“그런데 다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어주게 됐나요?”

나는 딱히 할 말이 없었지만 그 순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다리’라는 이름이 마치 사람이 아끼는 애완견에게 붙여주는 이름 같다고 생각했다.

“나와 다리엄마는 둘 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보고 자란 같은 세대 사람이니 않은가! 다리엄마가 다리를 임신했을 때 애 이름 짓는 것에 대해 미리 얘기를 나눴는데 만약 아들이라면 이름을 풀이라고 짓고 여자아이라면 풀의 아내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 하지만 이후 시대가 점점 변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겐 무시당하게 되니, 결국에는 우리 부부도 추구하던 이상주의적 동경을 스스로 점점 경멸하게 됐지. 그래서 다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다리 이름을 리다에서 다리로 바꿨다네.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딸아이 이름을 바꾸는 작은 방법으로도 이상주의적 동경을 배반하는 마음을 표출한 거야.”

“그런 거였군요.”

“이제 이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된 건가?”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내 부탁을 들어주는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다리를 제 딸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신경 좀 써볼게

요.”

그를 문 앞에서 배웅할 때까지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개월 후 나는 그가 보내온 표 한 장을 받았다. 표는 편지지 안에 끼워져 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 몇 줄만이 쓰여 있었다. 다리가 영광스럽게도 그 공연에서 어느 소녀합창단과 함께 ‘톱스타급’의 홍콩 가수 무대에서 합창을 하게 됐으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서 공연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저녁에 이미 다른 약속이 잡혀 있어서 공연을 보러 가지 못했다. 다리 아버지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부탁한 일을 더욱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나는 다리를 위해 배역 하나를 따냈다. 3부작 드라마였다. 대사 열 몇 마디를 하는 카메오 역할이었다.

하지만 다리는 그 역할을 거절했다. 극이 너무 짧고 출연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리 본인이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다리 아버지가 거절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그 일 이후 다리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연락이 끊겼다. 나도 점점 그 부녀를 기억 속에서 지워나갔다.

올해 춘절기간 중 초닷셋날 저녁이었던 것 같다. 그날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보세요. 샤오성인가? 내가 누군지 알겠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힘이 없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

“나 다리 아빠일세.”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네네, 알죠. 농담으로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겁니다.”

다리가 파상풍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누군가가 다리에게 병문안을 꼭 와줬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는 이리저리 생각해봤지만 다리의 그 작은 소원을 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나는 원래 항상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하물며 다리는 내가 마음속으로 늘 아끼는 아이였다. 나는 두말없이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다.

그 다음날 다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병원으로 갔다. 그게 다리와 나의 두 번



째 만남이었다. 다리의 얼굴은 아주 창백해져 있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었다. 그 커다란 두 눈에서 빛과 생동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리의 병은 파상풍이 아니라 패혈증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상풍으로 인한 심각한 패혈증이었다.

다리를 만나고 병실 밖으로 나와 다리 아버지에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물었다.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재차 물으니 그가 입을 열었다.

다리를 중심으로 다리와 같은 반 여학생 열 몇 명이 가수를 응원하는 소녀 ‘팬클럽’을 결성했다고 했다. 다리는 그 소녀 팬클럽의 ‘회장’이었다. 다리의 친구이자 그 팬클럽 회원인 한 친구가 손수건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하트무늬를 수놓아 그것을 우편으로 한 홍콩 가수에게 보냈다. 그 친구는 손수건 선물 보답으로 그 가수의 네 치 정도 크기의 사진 한 장을 받았고 사진 뒷장에는 그 가수의 사인이 있었다. 사실 그건 친필사인이 아니었지만 다리는 그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다. 당연히 친필사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진은 그 팬클럽의 아주 귀한 보물이 됐다. 다른 몇몇 소녀들이 크게 질투했다. 그중 가장 크게 질투한 소녀가 다리였다. 다리는 꼭 그 가수에게서 사진 한 장보다 더 귀한 물건을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다리는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사랑에 푹 빠진 이 소녀는 결국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작은 사발 반 정도의 피를 흘렸다.

다리는 손가락을 피에 적셔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혈서를 써서 보냈다. 피로 쓴 삼사천 자의 편지는 매 문장마다 마침표가 찍혀 있었다. 편지의 매 구절은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와 연결돼 있었다. 다리가 그 편지를 부쳤지만 마치 함흥차사처럼 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리의 손은 점점 더 감염돼 갔다.

“이 녀석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고작 가수 사진 한 장인데! 내가 열장도 받아올 수 있는데 말이야! 어쩌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한 동안 계속 눈물을 흘렸다.

“과상풍으로 인한 패혈증은 1%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데, 어째서 하필 내 딸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네!”

나는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담당 의사를 찾아가 물었다. 담당 의사는 다리가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했다. 혈액뿐만이 아니라 심근까지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됐다고 했다.

다리 아버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홍콩, 타이완 가수의 대형 콘서트를 기획했다. 다리 아버지는 그 가수들이 콘서트로 거금을 휩쓸어 기쁘게 홍콩, 타이완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회사에 오륙백만 위안을 벌어들여 주었다. 동시에 ‘스타 팬클럽 열풍’을 일으켰다. 그가 바로 중국대륙 소년소녀 팬들의 스타 팬클럽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인 샘이었다.

다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팬이자, 동시에 가장 실패한 팬이 돼 버렸다.

과상풍이 생명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1%도 되지 않는 적은 확률이 이러한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맛보게 된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다.

다리와 다리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 한편에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다리 아버지를 위로할 그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리와 세 번째로 만나게 된 곳은 화장터였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참석한 영결식이었다. 성인 남성 대여섯 명이 열네 살 소녀를 애도했다.

가슴 위에 놓여 있던 다리의 한 손에는 어느 홍콩가수의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내가 잡지 화보에서 오려 내어 가져온 사진이었다. 그 가수의 친필사인 필체를 따라 써서 사진 뒷면에 그 가수의 이름을 적었다.

나는 원래 다리가 살아있을 때 그 사진으로 다리에겐 조금의 심리적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진이 그녀의 부장품이 돼 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성인 남성 대여섯 명 중, 다리 아버지와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리 아버지의 회사 사람들이었다. 영결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기획 중인 콘서트에 대해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 한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말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백만 위안 넘게 버는 건 문제도 아니라니까!”

## 나의 초등학교 시절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다. 어느 해 겨울, 시내 보건소에서 우리 학교로 위생검사를 나왔다. 담임선생님은 학생 두 명에게 교실 문 밖에 서서 개인위생 상태 불합격을 받은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나도 교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몇몇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나와 교실 문 앞에서 보초를 서는 그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들은 급기야 교무실에 가서 담임선생님을 불러왔다. 담임선생님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냉담한 표정으로 물었다.

“량사오성! 너 왜 오늘도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온 거니?”

내가 말했다.

“어제 뻥 옷이에요.”

“어제 뻥 옷이 이렇게 지저분하단 말이야?”

선생님은 내 옷깃에 묻은 얼룩을 지적했다.

“이거 기름얼룩이라서 안 지워져요.”

“그럼 집에 가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

선생님은 화를 냈다.

“학교 올 때 입는 옷은 이 옷밖에 없어요.”

정말 그랬다.

그런데 선생님은 내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느꼈는지, 더욱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내 손을 보고 말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벽돌조각으로라도 네 손에 있는 때를 지워달라고 해! 가서 지우고 다시 와!”

이어서 선생님은 풀더미를 헤치듯 내 머리카락을 헤치며 말했다.

“서캐로 가득한 네 머리 좀 봐라. 꼭 머리에 쌀을 뿌려놓은 것 같잖아! 아으, 징그러워! 너 집에 가! 학교에 며칠 나오지 말고 위생검사가 끝나면 그때 와!”

학교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비누로 내 손을 여러 번 씻어 봤다. 벽돌 조각으로

비벼본다 해도 지워질 것 같지는 않았다. 내 손에 묻은 때는 내가 원해서 묻히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매일 집에서 흙 묻은 채소와 쌀을 씻고 시커먼 솔과 그릇을 씻어야 했다. 낡은 우리 집은 사방에서 찬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물독마저 얼어버릴 정도였는데, 내 손에 때가 안 생기고 배기겠는가?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위생은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때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담임선생님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둡침침하고 여름에는 습하며 겨울에는 몹시 추운, 마치 동굴과 같은 작은 집에 매일 밤 어린 아이 해서 다섯 식구가 낡은 침구 위에 모여 누웠다. 사방 벽과 천장에서 매일 최소 3근의 흙이 떨어졌으며, 아궁이는 그 좁은 공간에 매일 최소 200그램의 먼지를 날렸다. 우리 어머니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밖에서 품팔이를 하느라 우리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만약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주 깨끗하고 손에 때가 없고 머리에 서캐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시 나는 『중국의 붉은 별』을 읽지 않았는데, 만약 그때 내가 그 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 것이다.

“마오쩌둥 주석도 엔안에서 동굴 집에 살 때, 에드거 스노<sup>1)</sup> 앞에서 이를 잡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집안 형편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가난한 집 학생들은 싫어하고 집이 부유한 학생들만 좋아했다. 같은 반 친구들 중 구청장과 공사 서기, 공장장, 병원장 자식들은 모두 그다지 품행과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간식을 먹거나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한 번도 그들을 엄하게 꾸짖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의 신랄한 꾸짖음에 나는 그저 치욕감을 속으로 삭혔다.

두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뒤돌아 집으로 향했다.

국어 선생님이 이 광경을 보고는 나에게 말했다.

“사오성아, 집에 가지 말고 선생님을 따라오렴.”

1) 미국의 저널리스트, 서방 기자 최초로 중국 공산당의 본부를 방문 취재하여, 저서 『중국의 붉은 별』을 출판함.

국어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나를 교무실로 데려갔다. 국어 선생님은 나에게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사오성아, 네 머리카락이 너무 길구나. 좀 잘라야겠다. 선생님이 잘라줄게!”

선생님은 무언가를 가지러 교무실을 나갔다. 학교 서무과에 남자 선생님들이 서로 이발을 해줄 때 사용하는 이발도구가 있었다. 나는 국어 선생님이 분명 그 것을 가지러 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 더 이상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 한 아이가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마치 엄마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나는 같은 학년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비를 면제받는 학생이었다.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어린 초등학생은 늘 정신적 스트레스와 마음의 부담을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

“당이 공짜로 공부시켜주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니?”

설령 내가 특별히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담임선생님에게 이러한 가지 돋친 꾸지람을 들었을 것이다. 아니, 충분히 많이 들었다!

국어 선생님이 교무실을 나가자 나는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도망쳤다. 운동장을 지나 집을 향해 달려갔다.

“사오성아, 뛰지 마라! 차 조심 해야지!”

국어 선생님이 소리치며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나를 거의 따라잡았지만 나는 계속 달렸고 국어 선생님은 더욱 바짝 뒤쫓아 왔다.

“사오성아, 뛰지 마라. 너 선생님을 지쳐 쓰러지게 할 셈이니?”

나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멈춰 섰다.

국어 선생님이 내 옆까지 달려오고는 숨이 차서 쉼쩍거리며 말했다.

“사오성아, 너 학교 그만 다니고 싶은 거니?”

“네.”

“너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정도 지식만 배워서 나중에 커서 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러움을 견디면서까지 학교에 다닐 바에는 우리 아빠처럼 노동으로 밥 벌어 먹는 게 나아요!”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커서 훌륭한 노동자가 될 수 없어.”

“그럼 훌륭하지 않은 노동자가 되죠. 뭐!”

“그럼 너는 커서 학교를 원망하게 될 거야. 모든 선생님 특히 나를 원망할 거야. 네가 계속 학교에 다니도록 타이르지 못했다고 말이야!”

“선생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나는 열등감과 억울함, 수치심, 화가 치밀어 올라 영영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국어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오성아, 울지 마. 선생님이랑 학교로 돌아가자. 너희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걸 네 잘못이 아니야.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어.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를 존중하고 좋아하게 만들면 된단다. 그러려면 네가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순순히 국어 선생님을 따라 학교로 돌아갔다.

이 일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아찔하다. 그때 국어 선생님이 없었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황소고집 때문에 아마 우리 어머니까지도 나를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나는 지금처럼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국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훌륭한 노동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잘하는 어머니와 어릴 적 겪은 궁핍한 생활은 나 같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다. 찰스 디킨스는 일반 사람에게 가난은 불행이지만 작가에게는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에게 가난은 어린 시절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확실히 나를 일찍 성숙하게 하고 어린 시절부터 일찍 인생에 회의를 느끼게 했다. 또 스스로 인생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나 자신의 인생에 참여하게 했다. 비록 수백 번 가난을 저주한 적이 있고, 가난 때문에 아주 큰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지만 말이다.

나에게도 이야기를 잘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때 글자를 배웠으며 국어 교과서는 내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었다. 늘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나는 혼자서 교과서 전체를 미리 한번 읽었

다. 당시 본문에 나온 새로운 단어에는 병음이 표기돼 있어서 읽기 어렵지 않았다.

하루는 내가 교실 밖 계단에 앉아 집중해서 국어 교과서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국어 선생님이 그런 나를 보고는 물었다.

“사오성아, 무슨 책 읽고 있어?”

나는 별떡 일어나 손발을 가지런히 모아 대답했다.

“국어 교과서요.”

“어느 부분을 읽고 있니?”

“다음 수업 시간에 볼 새로운 단원 「집 지키는 새끼 산양」을 읽고 있었어요.”

“어때?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몇 번 봤어?”

“두 번이요.”

“즐거리를 얘기해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나를 불러일으키고는 학급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번 시간에는 제6단원 「집 지키는 새끼 산양」을 읽어 볼 거예요. 사오성이 먼저 우리에게 즐거움을 들려줄 거예요.”

내 원래 이름은 량사오성이다. 량사오성은 ‘문화대혁명’ 때 내가 직접 바꾼 이름이다. ‘문화대혁명’ 때 한동안 개명하는 유행이 일어났다. 학교 ‘학급 봉사위원’을 그만둘 때 처음으로 지금의 이름 량사오성으로 서명했다.

내 이름이 호명된 직후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져 한참 동안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격려했다.

“사오성아, 긴장하지 마. 말할 수 있을 만큼만 해보렴.”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미 산양에게는 새끼 산양 네 마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어미 산양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사오성이 이야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 자리에 앉으렴.”

선생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학급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나를 아주 부러워했다.

내세울 만한 게 없던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어떠한 분야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됐을 때, 게다가 남들의 부러움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저절로 자부심이 충만해진다.

그날 이후 국어 선생님은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 때마다 수업 며칠 전에 미리 나에게 알려주며 열심히 읽어오라고 했다.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기에 앞서 항상 먼저 나를 불러일으켜 학급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다.

국어 선생님은 교수법의 융통성을 주장하는 분이였다. 국어 선생님에게는 나 같은 학생이 필요했으며 나를 많이 아껴줬다. 내가 있어서 국어 선생님은 우리 반 국어 수업시간에 아주 즐겁고 활기차게 수업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국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필요했다. 국어 선생님은 내가 학급 친구들 앞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회는 당시 나에게 아주 중요했다. 어린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며, 나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 줬다. 이후 국어 선생님의 교수법은 전교 다른 수업에까지 전파됐으며, 구와 시 교육청 지도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잇달아 우리 반 국어 수업을 참관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나와 국어 선생님은 줄곧 손발이 척척 맞았다. 국어 선생님은 나를 좋아했고, 나는 국어 선생님을 존경했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모교로 국어 선생님을 몇 번 찾아 갔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고 당시 시의 모범 교사였던 그녀도 비판을 받았다. 한 번은 내가 모교로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은 막 비판대회에서 비판을 받고 돌아온 후 교정을 쓸고 있었다. 국어 선생님의 머리카락은 전부 깎여 있었고, 얼굴에 묻은 먹물을 마음대로 지우지도 못해 그대로 두고 있었다.

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다.

선생님이 물었다.

“사오성아, 너는 아직도 내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니?”

“네, 선생님은 제 마음 속에 언제나 좋은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은 마음 아파하며 쓴웃음을 짓고는 말했다.

“우리 사오성 같은 학생이 이렇게 말해주니 사람들의 비판도 달갑게 여겨지는구나! 이제 가렴. 앞으로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마.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것이 내가 본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나의 초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소년선봉대 보도원 담당선생님이였다. 국어 선생님은 시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학교에 ‘이야기 반’과 ‘소년 기자 위원회’를 만들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 자주 무단결석을 하고 교외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어 성적만 비교적 좋았지, 그 외 산수와 음악, 체육 성적은 모두 중간이였다. 5학년이 돼서야 소년선봉대에 가입했다. 국어 선생님의 많은 노력으로 다행히 소년선봉대의 붉은 스카프를 목에 걸 수 있었으며, ‘이야기 반’과 ‘소년 기자 위원회’ 회원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자신이 불량 학생이라고 여기는 학생을 국어 선생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늘 아주 못마땅해 했다.

내가 수업을 빼먹은 것은 결코 내가 공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당시 어머니는 항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을 하러 집을 나셨다. 형은 중학생이었는데, 학교 중국공산주의청년단위원회 부서기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형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늘 새벽에 집을 나서서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형이 다니는 학교는 전일제 학교였기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다.

집에는 남동생 두 명과 여동생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내가 매일 동생들에게 밥을 해주고 집안청소를 하고 물을 길어 와야 했다. 동생들은 언제나 울면서 자신들과 같이 있어달라고 보챘다. 나는 차마 6살, 4살, 2살 된 동생들만 집안에 내버려둘 수 없어서 수업을 자주 빼먹고 교외 학습 활동에 참가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은 한 번도 우리 집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했다. 어찌 보면 담임선생님이 나를 불량학생으로 여기는 건 더욱 당연했다.

담임선생님이 나를 싫어했던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항상 볼품없기 때문이었다. 옷들이 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았다. 남루하고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옷깃에는 솔바닥 재와 요리할 때 묻은 기름얼룩이 묻어 있었다. 학교에서 나와 친하게 지낸 친구는 없었다.

국어 선생님은 나의 초등학교 시절 학교 안에서의 유일한 친구였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국어 선생님은 내 초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좋아해준 선생님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자부심을 갖는 방법을 알려줬으며, 내가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문학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국어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국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나를 다시 그 의자에 앉히고는 내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교무실 안에 있던 몇몇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국어 선생님을 쳐다봤다.

한 남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아이 담임도 아니잖아요. 취 선생님이 이 학생 일로 선생님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던데, 모르시겠어요?”

국어 선생님은 피식 웃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국어 선생님은 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다가 바리칸으로 밀기를 반복하며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더니 마침내 ‘큰 임무’를 완수했다.

국어 선생님은 내게 미안해하며 말했다.

“사오성아, 내가 다른 사람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어서 가위와 바리칸을 사용하는 게 많이 서툴러. 한 겨울에 네 머리를 스포츠머리로 만들어버렸구나. 너 선생님한테 화내면 안 된다!”

교무실 안에는 거울이 없었다. 손으로 쓰윽 한 번 만져보니 이보다 더 짧을 수는 없었다. 뭐가 스포츠머리라는 건지, 거의 삭발 수준이었다. 덕분에 서캐가 사라진 건 맞지만 동시에 나의 자존심도 꺾여나갔다.

나는 국어 선생님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뒤이어 그녀는 세숫대야를 들고 와서 나를 보일러실로 데려가,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반반 섞어 받아 미지근한 물

을 만들어 내 머리를 세 번이나 감겨줬다. 그렇게까지 정성껏 내 머리를 감겨준 사람은 엄마뿐이었다. 세숫대야 속으로 몇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국어 선생님은 내 머리를 감겨주고 나서 다시 나를 교무실로 데려가 자신이 입고 있던 털 조끼를 벗어서 나에게 입혀줬다. 털 조끼로 내 옷깃에 묻은, 지워지지 않는 기름얼룩을 가려줬다. 그녀의 체구는 작고 아담했다. 나에게 입혀준 털조끼는 초록색이었다. 그 초록색 조끼를 내가 입으니 마치 엄마 옷을 입은 것처럼 영성했지만 그렇다고 너무 험렁하지도 않았다. 교무실 안에 있던 다른 몇몇 선생님들은 나와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으며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국어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다.

“사오성아, 가자. 내가 너희 반까지 데려다 줄게!”

그녀가 나를 데리고 우리 반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학급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학급 친구들 눈에는 한 겨울에 내 머리는 뽀뽀머리가 돼 있고, 내가 솜옷 위에 초록색 털 조끼까지 껴입은 모양새로 나타났으니 그 꼴이 아주 우스웠을 것이다!

국어 선생님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학급 친구들에게 매섭게 물었다.

“너희들 뭘 그렇게 웃어? 뭐가 그렇게 우습니? 친구의 곤란한 사정을 보고 비웃는 건 부끄러운 행동이야! 만약 내가 너희 반 담임이라면 그런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쫓을 거야!”

이 말은 분명 국어 선생님이 부지불식간에 뱉은 말이었으며, 결코 우리 반 담임선생님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담임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언짢은 기색이 역력했다.

담임선생님도 큰 소리로 반 친구들을 꾸짖었다.

“웃지 마! 무슨 코미디 쇼 구경이라도 하니?”

담임선생님 말에 나는 반 친구들 앞에서 더욱 모욕감을 느꼈다. 게다가 내가 들었을 때는 분명 국어 선생님이 대한 불만이 섞여 있는 말투였다. 국어 선생님이 그것을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국어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에게 말했다.

“취 선생님, 사오성도 수업 듣게 해주시죠!”

담임선생님은 일부러 말을 늘어뜨리며 대답했다.

“선생님이 애한테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시교육청 보건소 위생검사단이 우리 반에 위생 검사를 왔을 때 숨저고리 외투에다가 초록색 조끼를 겹쳐 입은 뻥뻥 머리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반 교실 문에 위생 검사 불합격 표시인 검은색 깃발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들 눈에는 나의 기괴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 뿐이었다.

그때부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반 담임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의 관계는 늘 좋지 않았다. 나를 포함한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게 다 순전히 나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 것 같았다. 몇 년 동안 나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과 나를 미워하는 선생님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양쪽 선생님 말을 모두 잘 들으려고 노력했다. 평평한 저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저울추의 역할을 힘들게 해내야 했다. 이러한 역할은 어린 학생의 마음을 빼놓아지게 했다. 그로 인해 이후 나의 성격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내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고질병인 우울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항상 국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저절로 좋아졌다. 하지만 당시 어린 나는 담임선생님이 왜 나에게 점점 더 매몰차게 대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4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는 이례적으로 국어와 산수 두 과목 모두 100점을 받았다. 게다가 『중국소년일보』에 내 글이 실렸고, 시 방송국의 프로그램 「소년선봉대」에서도 내 글을 소개했다. 또 어떤 글은 아동 영화 극장 광고 게시판에 붙여지기도 했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보며 매우 놀랐고, 선생님들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전체 조회시간에 국어 선생님을 칭찬했다. 한 때 불량학생이라 여겨지던 학생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많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국어 선생님처럼 학생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칭찬받는 것이 가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교장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을 칭찬하기 전까지는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의 ‘변화와 성장’이 나에게 대한 그녀의 남다른 교육 덕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그녀가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 일부 선생님들은 국어 선생님을 ‘기회주의자’로 치부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그녀를 공격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한 눈에 띄던 그 대자보의 제목은 바로 “기회주의자 XX은 어떻게 학교에서 사리사욕과 명예를 탐하였는가!”였다.

또 우리 반 친구들 대부분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에게 명예를 안겨준 내가 쓴 글 세 편이 국어 선생님이 대신 써준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헛소문을 퍼뜨리자 전교가 떠들썩했다.

“4학년 2반 량사오성은

수업 땡땡이 전문가다.

국어 선생님이 대신 써준 글이

『중국소년일보』에 실렸네.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방귀가 다 안 나오네!”

남자 아이 몇 명이 이런 말장난을 만들어 내 등하곳길에 나를 둘러싸고는 놀려댔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나에 대한 담임선생님의 야속한 태도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담임선생님은 산수 선생님이였다. 그녀는 산수 수업 시간에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질문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칠판에서 산수 문제를 풀게 할 때도 내가 아무리 손을 높게 들어봐도 그녀의 관심을 살 수는 없었다.

하루는 산수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은 교탁 앞에서 숙제를 검사하고 있었다. 교실 안은 조용했다.

“량사오성!”

그녀가 갑자기 큰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쭈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문제풀이를 멈췄다.

“너 앞으로 나와!”

잔뜩 화가 난 말투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벌벌 떨며 교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담임선생님이 말했다.

“너 왜 숙제를 다 안 했어?”

“다 했어요.”

“이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네! 너 분명 숙제 다 안 했어!”

“저 다 했어요. 중간에 한 장을 넘겨서 쓴 거예요.”

내 숙제 공책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나 있는 한 페이지가 끼워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 장을 넘겨 그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숙제를 했다. 숙제를 다 하고 나서 그 빈 장을 뜯어내는 것을 깜박했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빈 장을 넘겼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페이지도 비어 있었다. 내가 급하게 페이지를 넘기느라 두 장을 같이 넘겨버렸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는 교탁을 한 번 툭 내리고는 말했다.

“이거 봐, 거짓말이잖아! 이게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네! 숙제를 다 하지 않았잖아!”

나는 말없이 두 번째 빈 페이지를 넘겼고, 뒤이어 마지막 문제까지 푼 것이 보였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너 왜 두 장이나 그냥 넘겼어? 나를 한번 놀려 먹고 싶었던 거지?”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한 번 교탁을 내리치며 말했다.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분명히 그러려고 했어! 네가 지금 유명해졌고, 아주 잘 나가시는 선생님이 너를 감싸고 떠 받들어주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혼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 네 담임이야, 네 생활기록부는 내가 쓰는 거라고!”

나는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그 누구도 내 앞에서 나의 국어 선생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국어 선생님을 사랑했다! 그녀는 전교에서 유일하게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엄마처럼 생각했으며 나의 두 번째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교탁 위에 있는 빨간색 잉크병을 집어 들었다. 담임선생님은 내가 그걸로

자신의 얼굴을 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놀라며 뒤로 멀리 물러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량사오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잉크병으로 그녀의 얼굴을 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담임선생님에게 나도 사람이고,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나는 잉크병을 있는 힘껏 벽을 향해 내던졌다. 깨진 잉크병 작은 파편이 사방에 흩어졌다. 새하얗던 교실 벽에는 빨간 잉크가 남긴 ‘핏자국’이 새겨졌다!

이어서 나는 다시 분필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산산조각 난 분필이 사방에 굴러다녔다.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교실에는 쥐 죽은 듯한 적막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날 방과 후 나는 학교 교문 밖에서 퇴근하는 국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학교에서 나오자 나는 선생님을 불렀다.

그녀는 의아한 듯 물었다.

“사오성아, 너 왜 아직 집에 안 갔어? 여기서 뭐 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선생님이랑 조금 걷고 싶어요.”

그녀는 깊이 생각한 후 나를 잠시 쳐다보고는 빙긋이 웃어 보이며 말했다.

“좋아, 우리 같이 걷자.”

우리는 말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너 선생님한테 할 말 있지?”

“선생님, 저 전학가고 싶어요.”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왜?”

“저는 우리 반이 싫어요! 우리 반에는 친구도 없고 취 선생님도 저를 미워해요! 전학이 안 되면 저를 선생님 반으로라도 데려가 주세요!”

나는 말하면서 울고 싶어졌다.

“그건 안 돼!”

그녀의 말투는 아주 단호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

나 또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는 전학 갈 수 밖에 없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너 전학 안 보내.”

국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도망가고 싶었다.

국어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서서 말했다.

“사오성아, 도망가지 마. 너 외로워서 그러는 거지? 선생님도 늘 외로워! 네 외로움은 가난함 때문이고, 선생님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음, 다른 이유 때문이야. 네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해도 지금처럼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게 될 지도 몰라. 외로운 선생님과 외로운 학생이 더더욱 한 학교에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학가면 분명 너는 나를 그리워할 거고 나도 너를 그리워할 거야.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너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네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네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해.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거리를 뒤흔치는 안 돼. 모든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고 싶어 한다고 의심해서도 안 돼.”

나의 초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던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다 돼 간다. 나는 단지 실제로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글로 옮기며, 그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교육의 사회적 사명 중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난을 혐오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학생들의 가난을 혐오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행태는 우리 중국 사회와 우리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곳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나 또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몸소 경험하며 느꼈다.



나는 정말이지 이런 행태를 저주한다! 그리고 경멸한다!

##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마음)은 가장 유명무실한 하나의 장기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소위 ‘사상과 의식’을 갖게 된 날부터 심장은 ‘세상을 속여 헛된 명예를 탐하는’ 존재가 돼, 오늘날까지도 계속 잘못된 인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심장이 세상을 속여 헛된 명예를 탐하는 존재로 변해 버린 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들 탓이다. 하지만 우리는 심장이 분명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중요성은 마치 자동차 모터에 비유할 수 있다. 양손이 모두 잘려 나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는데 지장이 없고 심지어는 장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장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설령 아주 작은 문제라 해도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크게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만약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소위 ‘사상과 의식’은 본래 뇌 기능에 속하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못 인지해서 그것을 심장에 전가하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 커다란 오류로 긴 시간동안 지속돼 오고 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결코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국의 문화에서 또한 서양의 문화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수없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중국 문인이 경전이라고 여기는 고서 『문심조룡』이 있다. 이 책에서는 예술적 사고의 기능을 버젓이 심장에 귀속시켰다. 또한 신앙은 분명 뇌에 연관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신도들은 기도할 때 가슴에 십자가를 그린다. 그 이유는 심장이 가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인물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올바른 사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 아니다. 머릿속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이 또한 아니다. 사람의 올바른 사상은 오직 실천에서 나올 뿐이다.”

과거에 나는 이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을 외울 때마다 희열을 느꼈다. 그 이유는 마치 ‘영웅의 견해가 나와 일치하는 느낌’을 받아서였다. 한 위인에 의해 하나의 커다란 오류가 분명하게 바로잡히는 것을 보고 위로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어록집 페이지마다 검은색으로 뚜렷이 인쇄돼 있던 ‘사상<sup>思想</sup>’이란 두 글자 하단에는 모두 마음을 뜻하는 ‘심<sup>心</sup>’자가 붙어 있다. 보아하니 어떤 오류는 문화에 의해 긴 시간동안 반복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류가 됐다. 자세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세히 생각할수록 문화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어려워져 실망감을 절감하게 되는 글자와 어휘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심리와 심정, 심령, 심지, 심장, 심사<sup>心事</sup>, 심흥<sup>心胸</sup> 등이다. 또한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 긴 세월동안 끊임없이 병문<sup>病文</sup>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통치력이라는 게 비할 바 없이 강력한 것이다.

심장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오직 의사에게서만 정확하게 교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직 늙지 않았는데 기억력이 감퇴됐거나 사고력에 분명한 장애가 생겼다면 병원 접수과는 분명 당신을 뇌질환을 진료하는 신경과로 안내할 것이다. 만약 종일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지고 악몽을 많이 꾸다면, 당신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안내받아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검사 받게 된다. 사실 뇌질환 또한 깊이 들여다보면 뇌질환 범위에 속한다. 만약 당신을 심장내과로 보냈다면 그 병원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심장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선 인류가 상상해온 영혼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리 선조가 식인 행위를 했었다는 기록과도 관련이 있다. 한 부락의 사람들이 다른 부락의 사람들을 생포하게 되면, 마치 먹잇감을 사냥한 것처럼 득의양양하게 불더미 주변에서 춤을 추며 미친 듯이 기뻐하게 된다. 그러다 지치게 되면 포로들을 잡아먹는다. 편하게 먹기 위해서는 먼저 포로를 죽여야 한다. 심장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생명보다 늦게 소멸된다. 원시인이 포로의 가슴에서 피범벅이 된 심장을 끊어서 꺼낼 때, 뜻밖에도 심장이 아직 뾰뚱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야만적인 선조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심장은 소위 ‘영혼’이 몸속에서 ‘사는 곳’으로 상상됐다. 또한 심장이 완전히 멈춰 서야 영혼이 사라졌다고 여겼다. 심령, 즉 ‘마음’이란 단어는

이때부터 조금씩 생겨났다. 이후 문자로 확정되고 문화의 풍부함이 더해져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인류의 문화는 중국이든 외국이든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사람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연구해 왔다.

간혹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때, 무심결에 “나는 정말 너의 마음을 파헤쳐서(혹은 그의, 그녀의 마음을)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말을 해 봤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는 아무래도 원망 섞인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관찰해본 바로는 오늘날 중국의 현실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마음의 질을 가장 신경 쓰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신의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타인의 마음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러한 무신경은 우리 인류 문화에서 마음의 질을 크게 또는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과 점점 더 선명하게 대비된다. 요즘 사람들이 심장에 대한 문제만 신경 쓰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마치 마음은 본래 존재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제멋대로 상상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심장이야말로 몸속의 중요한 장기이며, 몸속에 실제로 존재한다.

확실한 것은 마음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또 확실한 것은 소위 마음과 관련이 있고 덕행과 관련 있는 모든 문제는 원래 뇌에 속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동안 마음과 심장을 동일시한 것은 하나의 커다란 오류로, 인류의 오래된 선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얼렁뚱땅 혼용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결국 사람에게는 덕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람의 덕행에는 결국 덕행의 높고 낮음이 있다! 설령 덕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다고 해도 결국은 ‘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인류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는 그 요구가 점점 높아졌다. 그렇지만 인간의 덕행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은 계속 멋대로 그 요구 수준을 낮춰 왔다. 이 점은 특히 현대 중국의 바로잡을 수 없는 대세가 돼 버렸다. 중국 이 땅에서 인간이 자신의 문화를 배반하는 행위가 가장 철저

하게 행해지는 것 같다. 중국인은 마치 두 다리가 거꾸로 들린 채 순식간에 천만 년 전으로 내던져진 것과 같다. 우리의 원시 선조와 동일한 문화수준의 고대로 내던져진 것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고대의 소위 인류 문화는 사실 두 가지의 양상만 지니고 있었다. ‘돈에 목숨을 거는 것’과 죽음에 대한 공포다.

현재 우리의 뇌에는 돈에 대한 생각만 남았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뇌가 종일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돈이다. 돈에 대한 그들의 탐욕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의 돈에 대한 갈망보다 더욱 크다. 죽음에 대한 그들의 공포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크다.

중국에는 이러한 민간 속담이 있다. “사람의 심장에는 각각 다른 열 개의 구멍이 있다.” 의미는 마음에 열 개의 구멍이 있고 각자 욕망과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중 하나의 구멍은 탐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이 탐욕은 돈에 대한 탐욕도 포함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구멍이 많다(속셈이 많다), 구멍이 작다(세상 물정을 모르다), 죽어도 열리지 않는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요즘 일부 중국인의 마음에는 대체로 한 가지 구멍만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을 지배하는 구멍이다. 그들이 탐하는 것이 돈이지만, 그것이 돈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다른 욕망과 감정을 지배하는 구멍은 마치 막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사람 손의 감각보다 섬세하고 세밀할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질적인 면에서 아주 조잡하고 초라하며 기능이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존재로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온, 내가 줄곧 존경해온 어르신이 있다. 그는 평생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삼사십만 위안 정도의 돈을 모았다. 그에게는 이미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다. 그의 아들은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형편이 넉넉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항상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기로 만든 수탉과 쇠로 만든 학, 유리로 만든 쥐와 고양이도 털 하나를 뽑을 수 없다”라는 속담처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어떤 ‘빈곤 지역 교육 기금’과 ‘이재민 구호’, ‘도의적 지원’과 같은 활동 앞에서는 항상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됐다. 마치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곤 했다. 만약 누군가가 기부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는 겨우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낡은 옷 몇 벌을 기부했다. 그런데 옷 상태가 심하게 낡아서 고물상에 게나 팔 것 같은, 버려도 시원치 않을 옷들이었다. 그는 기꺼이 ‘헌신적인 기부’

를 했다.

하지만 금전적인 기부에 대해서는 고개를 크게 절레절레 저으며 거둬 말했다. “나는 기부할 돈이 없어! 나도 돈이 궁해서 수중에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부를 한단 말인가?”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정년퇴직을 한 이후다. 그가 퇴직 전 차관급 대우를 누리는 버젓한 국장급 간부였을 때, 그럼에도 하루는 출장 도중 캔 음료를 사면서 회사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영수증을 받았다. 그가 비용처리를 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공무로 출장 가는 게 아니었으면 나는 음료를 사서 마시지 않았을 거야! 설마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라고 생각하나? 나한테는 어떤 음료수보다도 그저 녹차 한 잔이 최고야.”

그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그의 평판이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그를 보며 대단하다고 느낀 점 중 하나는 바로 직장 동료와 부하 직원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작년에 암에 걸린 이후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전화로 나를 불렀다. 나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대신 써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아주 뜻밖에도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시신을 중국의학과학원에 연구 목적의 해부용으로 기증해달라고 했다. 병상에 반듯하게 누워 있던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그는 아주 침착하고 차분한 말투로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의 모습은 그동안 다른 사람이 뒤에서 비난했던 그의 언행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면서도 당혹스럽기도 했다. 그는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눈치 채고는 나에게 말했다.

“자네, 다른 사람들이 내 뒷담화 하는 것을 많이 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말을 듣고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겠네?”

나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숨을 한 번 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도리와 자신이 겪는 고충을 말했다.

“나는 이제까지 적지 않은 돈을 모았다네. 그건 물론 내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니야. 내 자식 손자들 몫이지. 요즘 세상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들 하니까, 내가 먼저 나의 자식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내 자식 손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물론 내가 죽은 뒤에 자식에게 얼마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 그 외에는 다 쓸모없어. 돈 외에는 자식 손자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비록 내가 아직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미 자식 손자들 몫으로 생각해야지. 자식들은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떠나는 날, 내가 남겨준 재산이 자식들이 알고 있던 액수보다 더 많다면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겠지. 만약에 더 적다면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지. 내가 그들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으면 하네. 내가 아무데나 마구 기부한다면 그건 자식들에 대한 내 사랑을 함부로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겠나? 나는 이 나 이까지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았어. 그건 자식 손자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겠나? 그런데 내가 죽은 후 내 시체는 말이야. 그저 쓸모없는 물건이야. 사람이 죽으면 모든 일이 다 끝이지. 내 시체는 마치 내가 기부했다 다 떨어진 옷들처럼 금전적인 가치가 없으니, 원하면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고 한 거야! 시체를 기증하면, 내 삶의 숭고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또 좋은 명성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전에 나에게 대해 가졌던 여러 가지 편견을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왜 기증을 안 하겠나? 이렇게 나 자신과 자식 손자에게 기부하면 실질적인 손실은 없지 않은가! 자네에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숨김없이 다 한 거야. 나는 아무한테나 이렇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말하지는 않아. 믿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네.”

당시 그의 솔직한 말을 듣고 느꼈던 감정을 정확하게 형용하기 어렵다. 내가 느낀 여러 느낌 중 한 가지는 정확히 말할 수 있다. 바로 곤혹스러움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삼류 코미디언을 제멋대로 비극의 거장으로 여겨 홀로 착각에 빠져 존경하는 것과 같다.

그가 돈과 신체 중에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었다. 그에게 신체는 그저 ‘돈 외의 것’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체는

마치 낡은 옷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다. 그에게 그의 신체는 좋은 명성과 맞바꾸는 것 말고는 실제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는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식 손자에게 남겨주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사회에 기부하려고 한다.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장사꾼의 머릿속에서 나올 법한 발상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계속 생각해봤다. 원래는 모두가 “돈은 그저 몸 외의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언제부터 중국인은 “돈 외의 것들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일까? 여기에서 무의미하다는 것에는 사랑과 생전의 명예, 사후의 육신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치 불교적 해탈의 느낌도 있다.

나는 바로 그날부터 더욱 예민하게 삶을 관찰하고, 생활 속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려고 더욱 노력했다.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사고의 ‘대변혁’이 일어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만약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싶다면, 그녀에게 돈을 주어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돈이 내 마음을 대신해서 보여줄 것이다.”

만약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면, 자녀에게 돈을 주어라! “세상에서 좋은 건 돈 밖에 없다. 돈이 없는 아이는 지푸라기와 같다.”

만약 어떤 기업에서 직원을 표창하고 싶다면, 그에게 상여금을 주어라! 상여금이 끼워져 있지 않은 표창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의 심장이 유일하게 막혀 있지 않은 구멍을 더욱 크게 벌려 헉헉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이 마치 미국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에이리언의 알과 같다. 거칠게 살아 숨 쉬던 알은 돈만을 통째로 집어삼킨다. 돈을 다 삼키자 툭툭 껍질이 깨진다. 거기서 튀어나온 것은 흉악하디 흉악한 괴물이다.

나는 나날이 더욱 실감하고 있다. 심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사람의 심장, 우리 체내의 ‘펌프’가 점점 더러운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점점 나쁜 평판을 얻게 됐고 점점 더 추악하게 변하게 됐다. 물론 만약 뇌에게도 공평하게 추악한 이미지를 전가한다면 심장은 대단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이다. 마치 만화 속 그림의 선홍색 하트처럼 말이다. 반면에 뇌 이 녀석은 오히려 추악하게 변할 것이다. 뇌의 형상은 원래 별로 보기 좋지는 않다. 마치 대야로 얹어놓은 언두부와 같다. 사람들이 그 추악한 본질을 알게 되면 그것을 더욱 싫어하게 되



지 않을까?

일부 오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대로 둘 수밖에 없고, 크게 바로잡을 필요도 없다. 열심히 바로잡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심장이든 뇌든 모두 우리 신체의 한 부분으로 오천여 년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후에도 결코 문명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의 심장과 뇌의 추악함과 공생하면서 점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심장? 뇌? 모두 매한가지다.

## 냉혹한 이성

사실 나는 이성적 사고를 매우 숭상하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은 바로 열정에 상대되는 굳건한 힘이다. 열정이 마치 흥분한 말처럼 날뛰고, 드센 강물처럼 독을 무너뜨리며 넘쳐흐르면 바로 그때 이성이 그것을 막는 효율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 이성은 너무나 대단하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

내가 이성을 숭상하는 이유는 하필 내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타고나길 자신의 태도와 입장, 관점, 호불호를 숨기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이성의 힘이야말로 내게 결여된 부분이다. 이성이 부족한 탓에 나의 말과 행동이 늘 나도 모르게 쉽게 격해진다. 언행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거칠 것도, 거리낄 것도 거의 없어진다. 40세 이전의 나는 특히 더 그랬다.

나의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전에 나는 지식 청년이었다. 중대에서 연대 본부로 파견되면서 당시 내 이력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사상이 성숙하지 못함”. 이 문구에 쓰인 ‘사상’은 물론 그 당시의 ‘정치사상’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나는 ‘기관’의 지식 청년이 됐지만 ‘사상’은 여전히 계속 성숙하지 못했다. 그 결과 연대 본부에서 다시 목재 가공 공장으로 ‘유배’를 당했다. 이때 이력서에는 같은 문구가 한 번 더 기록됐다. 대학 진학 전에 중대에서 평가받을 때도 여전히 이 문구가 따라왔다. 대학 졸업평가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문구가 있었으나, 좀 더 친절한 표현으로 “사상이 조속히 성숙되길 바람”이라고 기록됐다. 베이징영화제작소에서 아동영화제작소로 전근을 갈 때 당시 나의 평가서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슷한 내용의 문구가 쓰였는데 그 표현은 꽤나 고무적이었다. “사상이 더욱 성숙되길 바람”.

이런 까닭에 40세 이전의 나는 ‘성숙’이라는 두 글자에 천적을 대할 때처럼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마치 채식주의자가 생리적으로 고기 위주의 기름진 성찬에 반감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중국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사상을 진짜 ‘성숙

한 사상'으로 여기는지 지금까지도 분간이 잘되지 않는다. 만약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에서만 쪽 살아온 사람의 사상이 각 단계의 '주류' 정치사상과 맞아떨어져 오히려 '성숙'하다고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상이 '성숙'해 온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 '성숙'의 추한 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잠시 미루겠다.

사실 나는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이성적 사고를 존중하고 이성의 힘을 높이 평가하던 나는 후에 이성이 지닌 빛의 아름다움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식 이성'으로 인해 생긴 논리적 사고에 대해 극에 달하는 혼란과 회의감을 느꼈다.

내가 혼란과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은 한 실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불붙은 논쟁은 십 년 아니 어쩌면 십오륙 년 전에 시작됐던 것 같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한 대학원생이 물에 빠진 노인을 구하려다 본인이 익사한 사건이 있었다. 물론 노인은 구조됐다. 나의 기억이 잘못됐다면 구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쩌겠든 내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매우 숭고하고 감동적인 일화다. 어떻게 봐도 그 대학원생의 행동이 여론의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당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먼저 몇몇 대학교에서 이 일에 대해 열띤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후 토론이 논쟁으로 가열됐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의견이 나왔다.

그 대학원생이 노인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것을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노인이 설령 구조됐다 해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그 노인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자연스럽게 소멸되며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저 한 명의 노인이 아닌가? 이러한 노인 한 명의 생명이 식물인간의 생명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의 생명 가치도 대체 어떤 점에서 풀 한 포기와 돌 하나의 가치보다 크다는 말인가? 하지만 노인을 위해 희생한 대학원생의 생명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가! 하물며 과거 중국 대학원생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았다! 그는 어쩌면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밟고 또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수가 되고 다시 대학교수에서 전문가나 학자가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는 중국 심지어는 세계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었다! 정말 그 가치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가? 하물며 그의 생명

은 세상에 다양한 모습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노인의 생명을 백 년 더 연장한다 해도 분명 그의 삶은 암담하고 빛을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었다.

이는 분명 상당히 이성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절대다수 대학생의 관점을 대표했다. 당신도 결코 이러한 관점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때부터 ‘중국식 이성’이 만들어낸 논리적 사고의 냉혹함과 오만함을 절감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의견은 ‘만약 그 대학원생이 구한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다면, 어쩌면 비교적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분명 자신감이 매우 부족하고 정면으로 맞붙는 것을 피해 절충된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적인 관점에도 마찬가지로 비판이 있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예리한 반박이었다.

만약 그 어린 아이가 정신 지체아였다면 어땠을까? 그 어린 아이가 커서 반드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대학 입시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는 그저 많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뿐이다. 대학원생 한 명의 생명을 평범한 사람의 생명과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학원생의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설령 그 어린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그 대학이 명문대학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대학 졸업 후 이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만약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이 돼서 타락하여 범죄자가 된다면 어쩔 것인가? 누가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당시 이 토론과 논쟁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TV프로그램에서까지 토론이 진행됐지만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끝났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느낀 바로는 그 대학원생의 행동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불러일으킨 공감대가 더욱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

당시 나는 은연중에 그 토론과 논쟁이 분명 당시의 중국인 특히 젊은이 그리고 대학생의 인간성에 대한 이성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우리 선조들이

오천여 년 동안 남긴 사상의 유산을 살펴봐도 이러한 토론과 논쟁은 철학자 사이에서도 언급된 적이 없는 듯하다. 전 세계 사상사를 살펴봐도 이러한 주제를 놓고 토론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매우 오래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연로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동시에 물에 빠져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연로한 어머니와 아내가 동시에 갑작스럽게 생사기로에 놓였을 때 그들을 구해야 하는 한 남성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정답’을 말한 남성은 없다. 이러한 질문에는 본질적으로 소위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성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매번 빠지는 딜레마와 그로 인한 미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미망에는 낙담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인간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을 우리와 가장 친밀한 혈연관계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따라서 누구를 먼저 구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 단지 찰나의 순간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다. 현실 속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은 언제나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을 먼저 구한다. 보통 나와 친한 사람을 두고 친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대학원생이 목숨을 희생하여 구한 사람은 전혀 자신과 혈연관계나 연인관계에 있지 않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대학원생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지를 논하는 토론과 논쟁은 여기서 시작됐다. 만약 그가 구한 사람이 그의 연로한 아버지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두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왈가불가 평가했을까? 만약 그가 구한 사람이 그의 어린 남동생이었다면 구조된 동생이 커서 범죄자가 될 가설을 세웠을까? 그렇다면 왜 그가 구한 사람이 생면부지 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희생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과 이런저런 가설이 나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는 인간의 이성이 지닌 위선적이고 추악한 일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위선과 추악함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가치가 없는 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다면 그를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 일을 하다 목숨을 잃게

되면 그의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죽음으로 치부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자체가 가치 없는 일로 합리화하여, 그 일을 어리석은 일로 평가하게 되고 그 일을 어떠한 명예를 좇기 위해 했던 일로 평가절하한다. 그러므로 그 일은 도리어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성적이고 무언가를 깨달은 인간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인간성’이란 세 글자가 인류의 삶 속에서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개구쟁이 어린 아이부터 지혜로운 노인까지, 현대 중국인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마치 엄숙하고 진지하게 그럴듯한 토론을 벌인 적은 없을 것이며, 논쟁을 벌인 적은 더욱 없을 것이다.

중국인은 현대 중국에서 이러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현상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중국인들로 하여금 ‘세상이 차갑게 변해버렸다’, ‘인정이 메말라 버렸다’라며 한탄하게 만든 원인이다.

십오륙 년 전 벌어진 그 토론과 논쟁은 오늘날 ‘영웅이 흘린 피가 되레 눈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대한 토론과는 다르다. 후자는 영웅의 행동을 결코 폄하하지 않으며 비판의 대상은 영웅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들이 된다. 하지만 전자는 이성의 숨덩이로 비판의 칼끝을 휘감은 채 위장하여, 피를 흘리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영웅들에게 칼끝을 겨누었다.

오늘날 ‘영웅이 흘린 피가 되레 눈물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십오륙 년 전 벌어진 그 논쟁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십오륙 년 전 나조차도 그 대학원생의 희생에 대해 아주 자신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보편적인 여론 편향과 인간성에 대한 관점이 그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의구심을 품게 된 사람들조차도 간혹 입을 닫고 모호한 침묵을 이어가게 했다.

나는 한 달 여 전에야 지난 십오륙 년 동안 기억 저편에 넣어두고 잊고 지내던 그 일에 대해 갑자기 깨닫게 됐다. 하루는 우연히 나의 친구 스둥밍을 만났다. 그는 베이징영화제작소 문학부 부공장장이다. 그는 길에서 나를 붙잡고 말했다.

“샤오성, 좋은 미국 영화가 있는데 만약 개봉하면 자네 꼭 보러 가게.”

내가 영화 이름을 물었지만 스둥밍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아

직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영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스승님은 길에서 나를 붙잡고 영화 내용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영화 내용은 이랬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 미국인 어머니가 아들 세 명을 모두 전선으로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같은 날 두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다. 이때 그녀의 셋째 아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투 중이었으며 그의 생사를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셋째 아들마저 전사한다면 과연 누가 그 어머니에게 세 번째 전사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됐고, 대통령 집무실에도 빠르게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은 전투에 능한 구조대를 꾸리도록 지시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의 세 번째 아들을 무사히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는 이 작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구조대는 세 번째 아들을 찾는 내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으며,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노르망디 전선에 뛰어 들었다. 마침내 그 병사를 찾았을 때 구조대에 남은 인원은 단지 한 명뿐이었다. 그 병사가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자신은 전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의 굳건한 결심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영화가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다. 영화 극본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고, 오스카상 심사위원들도 이 영화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 영화를 본 모든 관객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이런 영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많은 병사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단지 병사 한 명을 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이와 같이 이성적인 질문이 제기되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야기 자체가 예술 창작으로 이어지게 만든 예술적 충동이 순식간에 황당한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것 같다.

이 질문은 얼마나 냉혹하기 짝이 없는가! 현재 일부 중국인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냉혹한 원칙을 도대체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이러한 냉혹한 원칙은 여전히 많은 예술 분야의 창작 전제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중국인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원칙이 돼 가는 듯하다.

일본인은 원칙에 순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많은

우리 중국인이 이러한 점에서 일본인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매우 현실적이라서 매년 중국인들끼리도 서로의 온몸을 다 얼어붙게 만든다.

십오륙 년 동안 많은 냉혹한 ‘중국식 이성’ 사고의 표본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우승열패라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통용되는 경쟁 법칙을 사회학 사상 영역에 사용했다. 한 제품의 품질이 ‘열등하다’면 그것을 폐기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열등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생존 경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은 당연히 ‘열등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기준을 사장이 판단하여 정하면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국가적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어지는 문제는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을 취해야만 결코 수가 적지 않은 ‘열등’한 동포를 ‘도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도태된 동포를 국경 밖으로 내쫓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지구 밖으로 내쫓을 것인가?

다행히도 우리 중국은 우승열패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의 충고를 결코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우리 대다수 동포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국에는 비로소 국가 차원의 ‘재취업 프로젝트’와 ‘빈곤 구제 프로젝트’ 그리고 민간 차원의 ‘빈곤 지역 교육 기금’이 생겨났다.

단언컨대 전 세계 어떤 국가의 국민도 자신의 동포에 대해 ‘우승열패’를 주장한 적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수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즉 생존 경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부 사람들에게 더욱 더 많은 국가 차원의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냉혹한 중국식 이성적 사고와 같이 ‘만약 그들을 모두 도태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그들이 열등하다면 도태되는 것이 백 번 천 번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인간성에 대한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자. 과거 지식 청년이었던 진원화는 인민공사의 전봇대를 건지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를 두고 그다지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또 다른 지식 청년 장용은 인민공사의 어린 양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다. 심지어 산불을 끄기 위해 불속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15세 ‘소년 영웅’ 라이닝의 ‘용감함’ 또한 내가 생



각하기에도 중국 소년들이 따라 해서 안 될 행동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과 논쟁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조금의 긍정적인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이 노인을 구하든, 남성이 여성을 구하든, 지식인이 문맹자를 구하든, 군인이 일반인을 구하든, 병사가 상관을 구하든, 심지어는 경찰이 범죄자를 구하든(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총살에 처해야 하는 자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된다.), 항복을 받아낸 병사가 포로를 구하든 혹은 모두 그 반대의 경우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게 어떠한 경우든 모두 그 사람이 지닌 인간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목숨을 잃게 되면 사람들을 숙연하게까지 만들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토론과 논쟁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하는 사람의 사고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만약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결국 모두가 냉혈인간으로 퇴화할 것이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함정에 빠질 경우, 다른 코끼리들이 함정 주변을 둘러싸고 그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는다. 모든 코끼리가 자신의 코를 이용하여 최선을 다해 함정에 빠진 코끼리를 끌어내려고 한다. 자신의 상아가 끊어지고 코가 다치더라도 애태우며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이는 동물의 본능이다. 인간성은 이 본능보다 위에 있다. 인간성은 인간이 본능적 행위를 문명이라는 요소를 활용해 의식적인 행위로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만약 어떠한 이성이 이 의식과 반대된다면 실제로도 인간성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는 냉혹할 뿐만 아니라 추악하기까지 하다. 인간성은 이러한 이성의 ‘합리성’을 영원히 거부할 것이다. 우리 중국인들이 다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끄러운 주제를 두고 토론과 논쟁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인간성의 빛은 바로 이러한 전제하에 비로소 전 인류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성한 빛이 된다. 그 아름다움과 신성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숙연하고 경건하게 그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영원히 ‘맹신’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현대 중국인이 전 인류의 이러한 고귀한 ‘맹신’을 존중하길 바란다.

인간성과 인도주의적 사고에 대해 쓴 내 글이 십오륙 년 전과 거의 같은 토론

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어째서 예상하지 못했을까? 나는 지난 십오륙 년 동안 수많은 중국인이 분명 나처럼 인간성과 인도주의 원칙에 대해 일찌감치 그에 상응하는 반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예상이 틀렸다. 그렇다면 나의 ‘보충 설명’도 불필요한 말이 아닌 셈이 된다.

우선 내 글은 결코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내 글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이 영화에서 인간성과 인도주의 주제가 심도 있게 구현됐는지 혹은 극단적으로 또는 편협하게 구현됐는지 또 인간성과 인도주의를 주제로 이 영화를 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평론과 수용미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십오륙 년 전 벌어졌던 그 토론을 떠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수많은 일들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당시 설령 이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글을 써서 발표할 계획이었다. 영화의 개봉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이 글을 쓰게 된 것뿐이다.

내가 떠올린 ‘중국식 이성’의 지난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나와 같은 세대 그리고 우리의 윗세대 또 그 윗세대는 긴 시간 동안 인구가 매우 많은 우리 중국에서 실시한 인간성과 인도주의 교육이 매우 빈약하여 하나의 ‘단계’를 형성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모든 예술과 문화 매개체가 조금이라도 인간성과 인도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면, 여러 정치적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고 말로 또 글로 비난을 받게 된다. 작가가 비난받는 일도 종종 있다. 신중국 수립 이후 70년간의 예술과 문학의 전모를 둘러보면 중국 독자와 청소년에게 어떠한 인간성과 인도주의의 우수한 자양분도 거의 제공하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계급투쟁 철학은 유일하고 올바른 사회원칙이 됐다. 이 또한 냉혹한 이성이다. 일단 이러한 이성이 청소년의 머릿속에서 진리로 자리 잡고 지고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문화대혁명’ 속에서 냉혹하게 실천되면,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이성적 법칙이 됐다.

나는 하얼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얼빈에는 당시에 도 닭과 돼지를 기르는

집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닭을 잡는다. 빨리 가서 보자!”

“돼지를 잡네. 빨리 가서 보자!”

그들은 둥글게 모여 구경하며 마치 함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재밌어 했다.

결국 하루는 “사람을 죽인대. 어서 가서 보자!”라는 소리까지 듣고 말았다.

‘문화대혁명’ 전, 나는 마을 소년들이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를 재미삼아 괴롭히다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최소한 서너 번은 봤다. 보고 즐길 수 있는 ‘연극’이 없기에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즐겼다. 이후 그 소년들은 ‘홍위병’이 됐는데, 그들이 홍위병이 되어 저지른 ‘혁명’ 행동도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가 열리기 전 관련 부서가 각계 지식인이 참석하는 「정부업무보고서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한 적이 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도 이 자리에 초청돼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뒷부분에 인간성과 인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그 교육이 실제로 추가됐다. 단지 개념이 ‘무산계급’ 그리고 ‘혁명’과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됐다. 그래도 나는 크게 감동 받았으며 기쁘고 안심이 됐다.

아마 1990년 혹은 1991년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느 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 강연에서 중국 선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십 명의 농촌 출신 여성 근로자가 자신들이 근무하던 장난감 공장에서 산 채로 불에 타 죽었다. 당시 공장 측에서 작업장 철문을 막음으로써, 그녀들이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막아 버렸다. 나는 말하면서 슬픔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시 강연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적힌 쪽지 한 장을 받았다.

“지금 중국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몇십 명이 화재로 죽은 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악 제한 계획과 상통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들을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냉혹한 이성이 드러난 또 다른 실제 사례다.

나는 이 쪽지를 보고 저절로 험한 말이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회 간부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택시를 잡아 나를 배웅했다. 가는 도중에 여학생 간부가 말했다.

“저는 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출신 여성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공장 근로자가 됐으니 자신한테 주어진 모든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려고 왔다가 가혹한 대가를 치른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길 바라시는 건가요?”

예의 바르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 온화한 말투가 화를 낼 수 없게 했다. 그들과 더는 토론하고 싶지 않았다. 당시 나는 마치 ‘한여름에 추위로 온몸이 뻗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말했다.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더 이상 이 친구들 배웅을 받고 싶지 않네요.”

내가 차에서 내리자, 30대 택시기사가 그들에게 소리쳤다.

“너희들도 내려! 이런 망나니들을 봤나!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러한 경우를 나는 정말 많이 ‘당했다’. 다만 정해진 원고 분량 때문에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과 상통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를 계속 겪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더욱 많은 인간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인간성의 자유를 박탈하며, 인간성에 대한 자신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왜곡하는 것과 같다고 걱정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인간성 발휘를 요구하는 동기가 의심스럽고,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해로움은 자신들에게 ‘도덕적 수단’이 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지나친 과장이다. 나는

오늘날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목숨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고비의 순간을 목격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비의 순간에서 위협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 경험 또한 결코 없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도 나처럼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이 확률로 계산해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만 분의 99999의 사람이 평생 자신의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하는 상황을 마주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을 붙들어 매도 된다. 그를 포함한 10만 명 중 99999명의 사람은 거의 평생 동안 ‘도덕적 수단’이 될 기회가 없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람과 그 일에 대해, 죽은 자의 영혼이 위로를 받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간미가 너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려야할 뿐이다. 이는 살아남은 사람의 이익을 조금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는다. 마음 놓으시길!

만약 대학생이, 도태돼 쓸모없는 노인을 구한 행위가 ‘가치 없는 것’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만약 쓸모없는 노인이 한 대학생이 뚝통에 빠진 것을 보고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고소해하며 쳐다보기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그가 대학생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허, 너도 이곳에 빠져서 곧 말로를 맞이하게 되겠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구하는 건 결코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너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법률 규정을 아직 만들지 않았더구나. 설령 내 생명이 비천하다고 해도,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만약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한 것과 그다지 귀중하지 않은 것, 비천한 것으로 분류하여, 사회와 시대가 마치 전자에 대한 후자의 구제와 희생만이 당연한 것이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만약 이 논리가 반박되지 않고 점점 하나의 이성적 사고로 변해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된다면, 사실상 모든 중국인에게는 생명 위협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정당한 이유가 생긴다. 모든 중국인은 당당하게 그 이유를 말할 것이다. 남성은 신이 남성의 생명보다 여성의 생명이 더

욱 귀중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남성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린 아이와 소년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성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누가 안단 말인가?’ 심지어 자신을 구해 달라는 노인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만 좀 하세요! 나이를 그렇게나 많이 잡수시고도, 아직도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다른 사람이 구해주러 올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모든 일이 아주 간단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나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귀중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존중 의식에 대해 무지하고 그들이 지닌 자신의 생명존중 의식이 진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성적 사고만 명확히 지니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 남성과 여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동시에 비상구로 달려갔을 때, 남성이 여성을 밀쳐 내며 여성을 나 몰라라 하고 혼자만 도망친다 해도 이 또한 당연한 이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른이 해난사고에서 한 어린 아이의 튜브를 빼앗아 그 아이를 발로 걷어차 버린다면 이 또한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인간의 행위 중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성과 인도주의의 의미를 모두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닌 이성보다 더 저급한 행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우언라이가 자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의 결함으로 공중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낙하산을 한 어린 여자아이에게 주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또 자신의 고귀한 손으로 에이즈 환자 손을 잡아주어 그 에이즈 환자들의 절망적인 마음에 인간성의 따스한 위로를 준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의 행동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의 많은 문명인이 아프리카의 토착민 부락에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일이 우리 일부 중국인으로 하여금 더욱 코웃음을 치게 할 만한 일인 것일까?

또 우리가 알아야할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죽어 가는 상황을 둘러싸고 구경만 하는 일이 거의 매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적게는 십여 명 또는 수십 명이 많게는 백여 명 또는 수백 명의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봤다. 불과 한 달 전 상하이 『노동신문』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도했다. 어느 시에 살고 있는 한 아버지가 딸을 안고 호수에 뛰어 들었다. 당시 주위에는 사오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호숫가에서 삼십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빠진 모습을 본 한 자영업자가 그의 딸을 먼저 구하고 나서 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중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돕지 않았다.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차량이 바로 호수가로 진입할 수도 없었다. ‘높은 기준’의 이성을 지니게 된 우리 동포들에게 이성의 기준을 아주 조금만 낮춰서 어찌면 ‘구할 가치가 없을 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하러 온 경찰관에게 길을 터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면 이건 너무 주제 넘는 간청일까?

한 건장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다.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강에서 한 소년이 물에 빠져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 강의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았으며 그 남자의 키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그는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지나갔다. 소리를 한번 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상황을 알리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여겼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담배를 피우고 밥을 먹고 또 다시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고 TV를 봤다. 사람들이 강에서 익사한 그 소년을 그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소년은 바로 그의 천금 같은 아들이었다!

한 가족의 며느리가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은 걱정되기 시작하자 함께 집을 나섰다. 집에서 멀지 않은, 어둠이 내린 한 건물 모퉁이에서 그들은 분명히 한 여자가 다른 사람 손에 입이 틀어 막힌 채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말했다.

“우리 그냥 지나가죠!”

“그래, 절대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다음 날 그들의 아내이자 며느리인 그녀는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지난밤 그 건

물 모퉁이에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입이 틀어 막힌 채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외치던 그 순간…….

우리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아내를 잃은 남편, 딸을 잃은 노모 그리고 며느리를 잃은 시아버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이성적 사고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호소하면, 그러한 이성적 사고가 자신과 타인을 모두 기만한 채 새로운 이성적 사고로 인정받고,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 원칙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외국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어두운 빛을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신이 목숨을 희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이 소리를 한 번 지르거나 전화 한 통을 걸거나 차로 막거나 한 팔을 뺏거나 혹은 밧줄 또는 장대를 던지는 등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러오기만 해도 한 명 심지어는 몇 명의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어보자. 이런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들의 양심이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왜 한 소녀가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소녀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친 것인가? 한 여성이 길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도 주위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인가? 또 심장병을 앓는 환자가 길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로 몇 시간동안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옆을 지나가는 몇백 명의 사람들 중 왜 아무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도와주지 않은 것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만 위안 돈을 요구하고 나서야 아이를 구하러 물에 들어간 사건도 있었다. 왜 그런 것인가? 또 장거리 버스에 동승한 젊은 여성이 차 안에서 흉악범들에게 운간을 당하고 그 버스가 작은 마을에 정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납치를 당하는데도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은 것인가? 경찰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매우 많은, 인간성이 무감각해진 현실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유 권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설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일까?

본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높은 수준에 맞춰야 중간 수준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기준을 중간 수준에 맞추면 낮은 수준에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기준’ 또한 이성과 원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강조하는 그러한 자유 선택의 권리는 도대체 높은 기준의 이성과 원칙을 따르는 것일까? 중간 수준의 이성과 원칙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낮은 기준의 이성과 원칙을 따르는 것일까?

만약 불행히도 낮은 기준의 이성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앞으로 중국인이 인간성과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선인들은 ‘낮은 기준을 따르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상상해보자!

어떤 사람이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강조하는 이성적 사고가 시대와 사회의 인간성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특히 더욱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인류사회는 과거부터 줄곧 사람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인간성과 인도주의 원칙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년 후 어떤 모습일지는 나도 단언하기 어렵다.

십오륙 년 전 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청년 장화의 일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어떻게 더욱 많은 방면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보장해줄 수 있을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인명 구조 상식과 효율적인 구조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아동과 소년에게 어떻게 자아 보호 의식을 길러줘야 하는지, 여성에게는 어떠한 자기 방어 방법을 가르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국 남성에게는 주로 교육을 통해 아동과 소년, 여성, 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남성의 용감함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가르쳐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내 생명도 소중하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선택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속 시원히 말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현대 중국의 일

부 남성의 모습이다. 이러한 이성을 지닌 남성은 같은 이성을 지닌 중국의 아동과 소년, 여성과 노인보다는 분명 많을 것이다. 그 남성들은 젊고 건장하며, 아마 걸음으로는 교양을 갖춘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이성적 사고는 냉혹하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 사회와 시대가 그들의 이성적 냉혹함을 매우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냉혹한 사고를 선진적이고 ‘문명화된’ 새로운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에 대한 나의 답은 나는 그들이 자신의 이성과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자유는 보호해줄 수 있지만, 내가 그들의 주장에 맞장구를 쳐주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냉혹한 이성’은 『문화보』에서 발표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신경 써서 쓴 글은 아니었다. 관홍 기자가 원고를 청탁한 적이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오랫동안 미뤄오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쓴 것이다. 또 중국에서 인간성과 인도주의가 구현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매번 한탄하고 있던 와중에 글을 쓸 기회를 얻게 된 것이며, 느낀 바가 많아서 속 시원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뿐이다. 서투른 글 솜씨와 좁은 견해로 쓴 글이며,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나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처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같은 민족 간의 인간성의 온정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내 글이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식을 줄 모르는 토론 열기를 전해 듣고 나는 아연실색하여 할 말을 잃었다.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그 토론의 의미와 가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토론에서 도출된 결론은 이랬다.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명예로운 일이다. 하지만 구하지 않은 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소위 ‘구하다’와 ‘구하지 않다’에 대한 전제는 물론 인명 위협과 생사 위기 순간일 때 성립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하다’와 ‘구하지 않다’에 대한 문제가 존재할까?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성과 인도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

자면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구하지 않은 행위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다른 사람이 생사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네 가지에 불과하다.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보고도 못 본 체하며 유유히 지나가거나 혹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안전 경계선 안에서 팔짱을 낀 채 방관하며 놀리거나 혹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조 대가로 받을 금액을 협상한 후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협상 금액에 만족하면 그 사람을 구하고,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둔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의 자유’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선택을 제외하고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도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팔짱을 낀 채 방관하며 놀리는 것은 부끄러운 행위일까? 만약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부끄럽지 않은 행위로 판단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돈을 받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도 본인의 행위 또한 부끄럽지 않다는 이성적 논리를 가지게 된다. 이 논리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는 어쩌면 지금은 모든 것이 경제 법칙에 따라 처리되는 비즈니스 시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결코 근거 없는 추론이 아니다. 최근 십여 년 간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이 어디 한둘인가?

그중 중국 국민을 가장 아연실색하게 만든 사건은 남방 연해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어느 날 태풍이 갑자기 거세져 여러 척의 어선이 귀항할 수 없게 돼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 선박이 만약 즉시 출항했다면, 구조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고 구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선박 항해사는 즉각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물에 있는 어민 가족들에게 먼저 목돈을 마련해오라고 했다. 갑작스럽게 어디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풍량이 일기 시작했다 해도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우렁차고 호쾌한 목소리로 이유를 말했다. ‘선박 총괄지휘자’가 충분한 돈을 받지 않으면 배를 출항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선박 총괄지휘자는 국가의 공무원이지 않은가! 또 그 배는 국가의 선박이지 않은가! 결국 십여 명의 어민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정이 모두 황폐해졌다. 이것은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중앙텔레비전에서 보도했던 이야기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선박 총괄지휘자에게 왜 그 냉혹한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대답은 이랬다. 자신들이 구조한 어민들이 나중에 돈을 내지 않으면(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자신들이 헛수고한 게 될까 봐 그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비가 삼십여 명 어민의 생명(몇 척의 어선이 모두 전복됐지만 그중 절반 정도의 어민은 다행히 생존했다.)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이렇게 냉혹한 이성 아래 그러한 냉혹한 명령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하물며 십오륙 년 전 우리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얼마나 열띠게 토론했는가!

하지만 십오륙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두고 아주 열띠게 토론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을 지닌 중국인들까지 모아 놓고, 전례 없는 대 토론을 벌여야 하는 문제인가? 두 차례의 토론이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모든 중국인이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두 번째 토론이 첫 번째 토론보다 ‘토론의 깊이가 더해졌다’, ‘심층적인 면을 더 많이 다뤘다’, 인간성과 인도주의에 대한 ‘사상적 함의가 더욱 풍부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정말 점점 더 많은 혼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봤자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새로운 이성적 사고를 논의하는 것 아닌가?

나는 누구든 위험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영웅 본색’을 흉내내는 것을 결코 권하지 않는다. 단지 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일종의 무모함이며, 무모함은 종종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약 삼 년 전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흉악범이 한 여중생을 겁탈하려고 하자, 남자 학우 두 명이 급히 달려왔다. 흉악범이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그 두 남학생이 그를 짝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들은 흉악범을 파출소까지 끌고 가려고 했다. 흉악범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두 소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를 잡아끌며 파출소로 가던 중 어두운 곳에 다다르자, 흉악범이 그중 한 명의

소년을 칼로 찔렀다. 결국 그 소년은 피를 많이 흘려 병원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는 아주 비통한 교훈이다.

나는 그 소년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그녀는 아들을 위한 추모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소년이 남긴 비통한 교훈을 알리기 위해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후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의 좌담회에서 나는 청소년 자아 보호 의식 강화와 관련해서 ‘청소년 영웅주의’의 대대적인 선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나의 의견은 그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청년단 중앙위원회의 부서기도 완전히 동의했다.

나는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며, 그들 사이에서 적절하지 않은 ‘영웅주의’를 지나치게 고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들을 보호하는가?

법과 공안부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 사회의 남성이 자발적으로 이 사회적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두 차례 벌어질 동안, 다양한 생명 위협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은 바로 중국의 수많은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이다! 죽음의 위협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로 남성이다! 팔짱을 낀 채 방관하는 것 또한 대부분 남성이다! 분명히 구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만 남을 돕는 사람 또한 바로 남성이다!

도덕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길 바란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해 듣거나 또는 신문이나 TV에서 보고 들었거나 심지어 당신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러한 사건에서 그렇지 않았는지 말이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 열중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 또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모두가 ‘다양한 선택’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사회에게 요구하고 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현대 중국 남성이다!

나는 정말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일부 중국 남성들의 마음은 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얼마 전 중국의 어느 도시(정확한 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 지도자가 불쾌해할 것이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강도 두 명이 손에 둔 가방을 든 한 남자를 쫓는 사건이 일어났다.(아마 그 가방 안에 많은 현금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남자는 앞에 보이는 건물 마당으로 도망쳤지만 그 건물 마당에는 다른 출입구가 없었다. 스스로 ‘새장’ 안에 뛰어든 셈이었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두 명의 강도를 피해 건물 마당 사방을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결국 강도에게 칼을 두 차례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를 듣고도 고통스러워서 못 들은 척 했다.

때는 한 여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집 현관문을 잠갔다. 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자기 집 창문과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마치 경찰 수사극 영화를 보듯 그 광경을 구경했다. 강도에게 쫓기던 남자는 이리저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건물 마당의 유일한 출구는 이미 그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그 광경을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데 그 상황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 분명 노인과 여성, 아동, 청소년은 거의 없고 다수가 소위 대장부라 불리는 사나이들이었다!) 그들은 그 상황에 몰입하고 있었지만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못 들은 척했다’라고 한 말은 나의 상상이었다. 아마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 고통스러워서 못 들은 척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 광경을 구경하지 않고 두 귀를 가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결국 그 남자 한 사람만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 피바다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구경하던 남성들은 일제히 자발적으로 두 명의 살인자에게 길을 터줬다. 그들이 흉악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갈 수 있게 자발적으로 길

을 터준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하지만 남성들이 길을 터준 이유가 어찌면 그 남자가 살해당하자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어, 그들이 구경하던 ‘연극’이 끝이 나 ‘배우’가 무대에서 퇴장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와 다른 사례도 있다.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이자 지식청년 시절을 함께 보낸 양즈송이 나에게 알려준 이야기다. 그는 베이징 『대중건강』 저널의 편집장이다.

두 달 전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집집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복도에서 한 여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못하고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못 들은 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가 이해하는 인간성과 인도주의 정신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자유’와 ‘권리’의 경지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아내와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불현듯 자신이 최소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철문으로 된 현관 방문문을 한 번 광광 흔들고, 방문문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을 죽일 셈이냐? 법이 무섭지도 않나 보지? 썩 꺼지지 못해?”

위층과 아래층에서도 방문문을 흔들며 광광 소리를 내면서 남자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러한 인간성과 인도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의 위력을 빌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첫 번째로 집 문을 나섰다.

아직 나이가 어린 그의 아들이 그를 바짝 뒤따라 나오려고 하자, 양즈송은 아들에게 집에 있으라고 소리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처음 방문문을 흔들며 큰소리로 외쳤을 때 강도는 이미 겁을 먹고 도망쳤다.

그 여자가 입은 피해는 강도에게 핸드백을 빼앗기고, 칼로 한 번 베이는 경상을 입은 것에 그쳤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때 이렇게 말했다.

“다행히도 누군가가 방문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줬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이미 죽었을 거예요!”

가끔은 그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

아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다'라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도 전혀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다'라는 이성적인 생각을 견지하거나, 자유와 권리의 경지에서 이러한 이성적 사고가 강조된다면 또 만약 단지 일부 사람뿐만 아니라 점점 대다수 중국인의 이성적 사고가 된다면 특히 중국 남성의 이성적 사고가 된다면, 그렇다면 나도 앞으로는 이 토론에 대해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방법문을 흔들고 고향을 지른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나의 얕은 생각으로는 십오륙 년 전 장화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토론해야만 하는 주제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일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경험인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무모함인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교훈이 될 만한 행동인가?', '장화의 행동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구할 것인가?'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인가?'라는 이 두 가지 토론 주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론 주제다. 만약 우리가 십오륙 년 전 장화의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면, 이는 장화와 그의 가족에게 조금의 위로는 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국인 특히 중국 남성들은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을 구하는 행동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인간성과 인도주의에 대한 소위 새로운 이성적 사고가 결코 아니다. 이미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토론이 벌어졌다. "내가 왜 모르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 그가 혹시 흑오류<sup>黑五類</sup>일수도 있지 않은가!", "그가 어찌면 흑오류의 자식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고는 단지 그 당시에는 사람을 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정도다. 우리 현대인이 이런 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문화대혁명' 시대 사람들보다 많이 진보한 것일까? 더욱 높은 식견을 갖춘 사람

2)문화대혁명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다섯 가지 부류 -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불순분자, 우파분자.



들의 해답을 듣고 싶다!

## 농민 마쉐이를 변론하다

마쉐이라는 한 농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는 군대를 전역했으며, 전역 당시 부대에서 매우 뛰어난 병사였다. 그는 제대 후 이십여 년 동안 강에서 배를 몰며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다. 마쉐이는 그 일을 하면서 이삼십 명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지만 자신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았으며 늘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마쉐이가 마을 읍장과 서기를 포함한 몇몇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법원에 고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일심과 이심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마쉐이가 패소했다. 이심 판결은 어느 시의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렸는데, 그곳은 법률 심판에 있어서 매우 권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쉐이는 판결에 승복했다.

마쉐이는 왜 그 공무원들을 고발했을까? 어느 날 강에서 배 한 척이 전복돼 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 역시 많았다. 백 명이 넘는 사람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 마쉐이가 공무원들을 고발한 것은 이 사건에서 시작됐다.

사람들은 사고 현장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이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변화인가? 이는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정신이 당시 시민들의 보편적인 인도주의 정신이 됐음을 증명했다.

마쉐이는 당시 강에서 배를 몰다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 마쉐이는 배 위에 올라가 기지를 발휘해 그물망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익수자 두 명을 구조해냈다.

몇몇 마을 간부는 표창식을 열어 당시 구조 현장에서 활약한 사람에게 용감한 시민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그들은 표창식을 열어 용감한 시민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더 고양되도록 하고자 했다.

표창식은 분명 사회적으로 필요한 행사였으며 특히 취지가 매우 좋은 행사였다. 마을 간부는 표창 인원을 다섯 명으로 정했다. 표창장 수여 대상자 선정의

전제 조건은 물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을 한 시민으로 정했다. 간부들은 아주 민주적으로 보이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정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의 추천을 받고 자신들이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마쉴이가 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배 위에 서서 구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마쉴이가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마쉴이를 추천했다. 이십여 년 동안 이미 이 삼십 명을 구한 마쉴이는 매우 기뻐했다. 그가 평생 처음으로 받게 되는 표창이었으며 그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 간부는 최종적으로 용감한 시민 표창장 수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마쉴이의 이름을 표창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원칙’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었다. 마쉴이가 물에 들어가서 구조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으니 그의 이름이 공개 표창 명단에 없는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그 간부 중에는 구조자 가족과 함께 직접 마쉴이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세심하게 일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리 마쉴이에게 그가 표창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표창식 시작 전 마쉴이는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에게 등 떠밀려 첫 번째 줄에 앉게 됐다. 첫 번째 줄에는 그를 포함해서 총 여섯 명이 앉아 있었다. 마쉴이는 눈앞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섯 명이 몸에 큰 꽃이 달린 붉은 비단을 두른 채 용감한 시민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혼자 소외를 당했다. 당시 마쉴이의 심정이 어땠을 지 짐작이 된다.

마쉴이가 겪은 난처한 순간이 이 정도에서 끝났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마쉴이를 더욱 난처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다섯 명의 수상자가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한 간부가 마쉴이에게 큰소리로 꾸짖듯이 소리쳤다.

“상관도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요? 얼른 비켜요!”

마쉴이는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 농민의 자존심이 심하게 구겨졌다. 마쉴이는 여태껏 이런 낭패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과연 그를 속이 좁다고 비난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평범한 한 농민의 자존심이 구겨진 것을 누가 신경 쓴단 말인가? 그렇게 마쉴이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 결국 이 정직한 농민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는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마을 간부를 찾아가 다른 다섯 명과 동등하게 자신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의 체면을 만회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과연 이것을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왔다. 물론 그는 더욱 체면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당연히 한 번 더 시도해야 했다. 11개월이 지나 마쉴이는 마침내 용감한 시민 표창장을 받아 냈다. 이것이야말로 한 농민의 자존심 수호를 위한 전투가 아닌가?

마쉴이가 마음의 안정을 조금 되찾아가고 있을 무렵 마을 간부들의 말을 전해 듣게 됐다.

“마쉴이가 받은 표창장은 무효야. 그저 그를 조용히 만들려고…….”

마쉴이가 마치 ‘불순분자’가 돼 버린 듯했다. 마쉴이는 결국 우롱당한 기분이었다. 이것이 정말로 마쉴이를 그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준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면 용감한 시민 표창장을 11개월이나 지나서 줄 이유가 있겠는가? 또 그게 아니라면 마을 공무원이 마쉴이에게 소리치며 “정말 사람 질리게 하네! 당신이 뭘 어쩔 건데?”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이유로 마쉴이가 그들을 고발한 것이다. 일심에서 마쉴이가 패소했다. 법원은 용감한 시민 표창과 관련된 법률 조문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쉴이의 요구에는 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쉴이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심에서도 패소했다. 법관들은 일심 판결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모든 법관이 자신들은 ‘법에 의거해 사건을 판결했다’라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거침없이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중국중앙텔레비전의 한 저녁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이야기다.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는 이랬다.

“이런 일은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이는 분명 시대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러한 종류의 글을 쓰지 않았고 이러한 행태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당시 다시 한 번 분노를 느껴,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TV를 볼 수가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최소 열 번은 이런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글을 쓰지 않으려니 마치 목구멍에 생선가시가 걸린 것 같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 많은 일들이 떠올라서 더욱 분노하게 됐다. 나는 이 글에서 욕을 쏟아 붓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욕하는 것은 결국 교양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농민 마쉐이를 위해 분개할 것이다.

우선 그 마을 공무원에게 물겠다. 당신들은 무엇을 근거로 표창 인원을 다섯 명으로만 정했으며, 왜 당신들이 정한 그 ‘기존방침’대로만 일을 처리한 것인가? 마쉐이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설마 마쉐이가 구한 건 두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는 것인가? 또 당신들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정신을 더욱 고양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슨 평생 특별한 대우를 누릴 수 있는 ‘고위직함’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마을 지도부 인원을 추가로 뽑는다고 생각한 것인가? 마쉐이를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용감한 시민 정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마쉐이에게 기껏해야 표창장 한 장과 삼백 위안의 포상금만 수여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삼백 위안 정도는 당신들 공무원 한 끼 밥값이지 않은가? 당신들이 나랏돈으로 거하게 한 상을 차리면 삼백 위안이 훨씬 넘는 돈을 쓰지 않는가? 하물며 마쉐이가 원한 건 그저 표창장 한 장과 당신들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것이지, 돈을 바란 게 아니란 말이다! 마쉐이가 예전부터 이삼십 명의 사람을 구한 사실을 참고해서 설령 그날 마쉐이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이 생각해낸 방식으로 두 명의 목숨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를 포함한 모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마쉐이를 표창하는 것이 그를 표창 명단에서 없애는 것보다 용감한 시민 정신의 대중 교육에 더욱 유리하지 않았을까? 설마 마을 사람들조차도 모두 마쉐이가 표창을 받을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당신들은 무엇을 근거로 ‘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구한 사람’에게만 표창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정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 활동을 한 사람의 공로를 무효로 치부해버리는 것인가? 이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어떤 비열한 머리에서

나온 뽀뽀이수작이란 말인가? 이러한 표창 선정 ‘원칙’을 정해놓고 대중적인 용감한 시민 정신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 웃기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용감한 시민 정신은 결코 구조 과정의 연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의 최종 목표는 결국 생명 구조임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했다 한들 모두를 표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고,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더군다나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면 표창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설마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우물 밖에서 밧줄을 던지기만 했다고 해서 그 구조 행위의 ‘가치’가 깎이게 된다는 것인가? 또 불구덩이에 갇힌 사람을 구조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사다리 끝에서 다른 사람이 구조한 사람을 넘겨받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감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만약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익수자 두 사람을 구했는데도, 표창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다면 마쉴이가 명단에서 제외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날 구조 작업에서 활약한 사람이 마쉴이를 포함해서 여섯 명뿐이지 않은가?

만약 마쉴이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이삼십 명을 구한 사실을 몰랐다면, 마쉴이가 처음 자신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해줄 것을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마을로 직원을 보내 마을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봤다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만약 마을 사람들에게 마쉴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쉴이가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이삼십 명의 목숨을 구한 일관된 행적과 마쉴이가 ‘그날’도 결국 두 명의 사람을 구했던 사실을 감안하여, 마을로 직원을 보내 마쉴이에게 용감한 시민 표창장을 전달했다면 당신들이 용감한 시민 정신을 고취하는 진심을 더욱더 증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간부 평판 향상에도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신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인가?

관본위<sup>官本位</sup>3) 사상이 당신들 머릿속에서 휘방을 놓은 것인가?

3)직위나 권력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가치관.

“우리가 다섯 명으로 정했다면 다섯 명인 것이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익수자를 구조한 사람만 표창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으면 그것은 한 번 말하면 바꿀 수 없는 ‘어명’이다!”

하지만 나는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만약 마쉴이가 당신들과 같은 간부 중 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당신들보다 높디높은 고위 간부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도 조롱거리가 돼 버린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

만약 당신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간부가, 설령 그가 당신들보다 약간 높은 직급에 있는 간부라 하더라도, 그가 당신들에게 상의하는 태도로 마쉴이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면 당신들은 계속 고집을 부렸을까?

또 만약 당신이 주최한 다른 표창식에서 당신들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간부의 이름이 명단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면 혹은 그가 무대 위에서 표창장을 받아야 하는데 무대 아래서 푸대접을 받는다면 심지어는 그가 심각하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까? 몇 번이나 사과를 하면서도 그 간부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할 것이다!

‘한날 농민의 자존심이 구겨진 게 무슨 대수야?’

흠! 당신들이 진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마을의 공무원이다. 우리가 표창식에서 다섯 명에게만 표창을 하기로 정했으니, 여섯 명으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게 마쉴이라면, 한날 평범한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무시해라! 누가 그가 예전에 몇 명을 구했는지 신경 쓴단 말인가!”

“우리는 마을의 공무원이다. 우리가 이미 ‘만장일치’로 ‘물에 들어가서 익수자를 구조한 사람’에게만 표창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정했으니, 누구를 위해 이 선정기준을 바뀌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게 마쉴이를 위한 것이라면, 됐다!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의 요구를 들어줬다가는 우리는 공무원의 위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한 ‘원칙’을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가 표창식에서 망신을 당했든 말든 누가 신경 쓴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냉혹한 이성이 아닌가?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결과로 보

면 마쉴이가 패소했지만 그래서 당신들은 그로 인해 명예를 얻었는가? 가까스로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서 무슨 명예를 얻었느냐 말이다.

이번에는 일심과 이심 법원에게 묻겠다. 법률상 의거할 조문이 없다고 해서 법률 밖에는 인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법관은 모두 법리만 알고 인정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법원은 법리만 중시하고 근본적으로 인정은 무시하는 곳인가?

그렇다면 법률 상 법원 조정과 법원외 조정 이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심과 이심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모두 조정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한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마을 간부에게 직책에 걸맞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률의 엄정함이 훼손되는 것인가? 물론 법원이 그렇게 조정을 하려면 우선 한 농민과 몇몇 마을 간부를 똑같이 존엄성을 지니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분명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쉴이는 줄곧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을 항상 당연한 일로 여기고 그러한 일로 명예와 이익을 꾀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번 익수 사건에서 두 사람을 구했으며 이후 자존심이 심각하게 구겨진 상황에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 아주 평범한 농민이 중국 일심과 이심 법원에게 단지 자신의 아주 작은 자존심을 되찾아줄 것을 호소했을 뿐이었지만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용감한 시민 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는 어느 표창식에서 시작됐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정말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른 몇몇 사건들이 저절로 떠올랐다. 모두 TV에서 봤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교통경찰이 교통규칙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한 마차의 도로 통행을 막았다. 그런데 그 교통경찰은 마차 뒷자리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며 힘들어하는 임산부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 건물 수위가 자신이 당직 보초를 서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강간 폭행 사건을 보고도 묵과한 일도 있었다. 어느 경비실 직원은 “외부인은 내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빌미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애원을 거절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 항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상부



에서 정한 규정대로 먼저 돈을 받아야만 배를 출항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눈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애원하는 어민 가족을 차갑게 외면했다. 결국 당시 그 어민들은 폭풍 속에서 넓은 바다에 시체로 묻히고 말았다.

병원이 혈액은행의 혈장을 가져올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무장경찰부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무장경찰 사십여 명의 혈액을 수혈받아 임산부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벌 통보를 받아야 했다.

이런 규칙과 규정은 모두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신’이 정한 것인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 정한 것이 아닌가? 일부 중국인 특히 중국의 고위 관료와 하급 관리가 시행하는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의 일부분이 됐으며 그들이 휘두르는 냉혹한 도구가 돼 있을 뿐이다.

어느 정도까지 냉혹해져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냉혹함이 마치 인간성과 인도주의 원칙 위에 존재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간혹 직급이 낮은 몇몇 공무원 또는 단지 공무원 한 명의 말 한 마디조차도 충분히 ‘철칙’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듯하다. 그 철칙 앞에서 어떤 일들은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 되기도 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그 철칙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아주 큰 억울함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을 잃게 되고, 간혹 사람의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는 듯하다!

러시아 작가가 표현한 차르시대의 추악하고 냉혹했던 인물의 모습과 이러한 중국인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 공무원의 모습은 러시아 차르시대의 권력을 쥔 하급관리와 많이 닮아 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인도주의와 인간성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도주의와 인간성을 신성한 지위에 두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이 실제로 응용되는 과정에서 융통성이 발휘돼야 한다. 우리는 언제쯤 그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당신도 내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